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4 2017

VOL. 250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 Galaxy A

## Smartphone with Attitude

IP68 DUST & WATER RESISTANT\*

HIGH RESOLUTION CAMERA 16 + 16MP\*\*

\* Dust and Water Resistant (IP68 rating) means that device is protected against entry of solid foreign objects and harmful ingress of water at up to 1.5 meters for up to 30 minutes, under certain defined test conditions. According to accredited test results, individual results may vary. Note: IP68 rating does not mean that device is waterproof.

\*\* Front & Rear Camera Specification on Samsung Galaxy A5 & A7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15 <sup>+1</sup>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0	2025	매일	77W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네가지 맛으로 교민, 현지인 함께 즐겨요~



쇠고기버섯면



머드크랩해물면



김치라면



볶음김치면



## 르바란 스페셜 선물세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때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세요!  
받으시는 분들이 더욱 좋아하실 실속 선물세트!



8입: Rp49,500



16입: Rp99,000

문의

PT.SegyeFood

Jl.Mutiara Raya No.1 Pasar modern Mutiara Karawaci, blok B-30 Karawaci Tangerang  
Mobile: +62 812 9900 0117(한국어) Tel: +62 21 5566 1187(인도네시아어)



# SALE

LOTTE *Grand festa*

4월 3일 - 9 일 Main 아트리움



## Easter EGG-STRA PRIZES

3월 29일 - 4월 16일

2주다 이상 구매시 10만루피아

더블 밸류 상품권 증정

4월 14일-16일 (오후7시부터-10시까지)

UP TO  
**70%**  
OFF

### 스페셜 바자

#### SPRING TRAVELOVE

(4월3일 ~ 16일) Event 아트리움

Samsonite



LOJEL

LODGING & TRAVELHOUSE

DELSEY

ELLE

condotti

아.



WIN TRIP TO  
**KOREA!**

\*Terms & Conditions Apply

**ROCOCO**

#### ROCOCO SPRING BAZAAR

(4월 18일 ~ 5월 8일) Event 아트리움

### NEW 4월 오픈 브랜드

**ACE**  
The helpful place.

**adidas**

**Live+Toys**

**TOYS KINGDOM**  
Creating Smiles

Spa Garden  
**FACEGYM**



### 스카이 점프 트램폴린

4월 21일 ~ 7월 30일  
Fun 아트리움 3층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요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 <http://www.innekorean.or.id> )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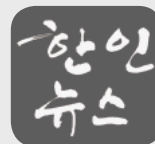
우리는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봄이 왔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봄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마냥 꽃피는 봄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에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고  
좋은 것을 누릴 편안함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자신이 속한 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합니다.

어젯밤에 요란하게 내린 비가 무색하게  
오늘 이곳의 아침은 화창합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차례

- 8 편집위원 칼럼 / 논설위원 김문환
- 10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주요 프로젝트
- 24 집중! 이 사람 / 세계푸드글로벌 엄정호대표
- 28 JIS 소식 <김재호>
- 29 공감 <조현영>
- 32 집단병의 <배동선>
- 36 박상훈 칼럼
- 38 김응욱의 경제이야기
- 40 월간뉴스 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44 지상갤러리 <김은정>
- 46 행복에세이 <이은주>
- 48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 52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자가 위대하다 <김병완>
- 54 인도네시아 민법 <이승민>
- 56 여기~ 맛있어요 <이승진>
- 58 스마트해진 행정서비스
- 60 김종성의 생활법률
- 62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69 생활정보



Nyepi, a Balinese Hindu holiday of quiet and introspection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 @dqdoodle ]



중앙우체국 앞 안내표지판

## 한계령을 넘나드는 인도네시아인들

글: 김문환/논설위원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앙우체국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 ‘임시 폐쇄’라는 의미의 인도네시아어인 ‘Ditutup Sementara’가 영어, 중국어와 함께 병기된 안내표지판을 본 적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공관이 소재하는 여의도 쪽엔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 서울의 중심상권인 명동 주변에 버젓이 등장한 인도네시아어 안내판은 인도네시아를 접한 적이 있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인접해 있는 남대문시장 잡화상 거리로 들어서면 히잡으로 단장한 여인들이 물건값을 흥정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인도네시아어가 심심찮게 귓전에 맴돌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양국 문화교류라는 화두에 접하면 으레 한류가 이쪽으로 넘어와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주입하는 형태를 취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양상이 쌍방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로 변화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감지하게 된다.

한국에서 취업하는 인도네시아인 수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 수에 버금가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특정 한국문화단체가 주최하여 예술의 거리인 서울 인사동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떡 전시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문화의 한 단면을 소개한 적이 있다. 용산지구 삼각지 노변 한 카페에 들리면 메뉴판에 ‘인도네시아산 커피’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인도네시아 정취가 곳곳에 베어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추세는 수도권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동해안 북단 강원도 산골 한계령 중턱에 위치한 오색 리조트촌에 들어서면 ‘슬라맛 다땅(Selamat Datang)’이라는 인도네시아어 입간판이 우리를 내려다 본다. 인도네시아인과 말레이시아인을 겨냥하여 아마 겨울철엔 평창 일대의 스키장, 봄 가을엔 설악산으로 연계되는 패키지 여행코스의 일부분으로 생각된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2월 진 부령 알프스 스키장을 찾은 동남아인들의 발길이 130% 신장될 정도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대비 2016년 10월까지 한국을 찾은 아시아인들의 증가구성비를 보면 인도네시아인 40%, 중국인 35%, 대만 29%, 말레이시아 28%로 단연 인도네시아인들의 증가세가 높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까르노-핫따공항에서 강원도 스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양양공항까지의 비정기 직항노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요즘 한국 관광지에선 공식 자격증을 소지한 인도네시아어 관광안내원이 부족할 정도라 한다.

‘5월사태’ 다음해인 1999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 <이규태 칼럼>은 지구상에서 가장 온순한 사람들인 인도네시아인들이 돌발적이고 격심한 폭력사태로 돌변하는 상태를 ‘아묵(Amuk)’ 이라고 소개하며, 이 단어는 영어사전에 등재된 몇 안 되는 인도네시아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규태 칼럼니스트는 일찌감치 인도네시아인들의 인성을 정확히 간파한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민족이며 우리들의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인들이 지금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며 몰려오고 있다. 우리 한인사회는 20~30년 전 한 때 현지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용기있는 한 동포가 ‘어글리

코리안’의 작태를 찌라시 형태로 묶어 우리 스스로를 한인사회에 고발했겠는가? 소위 ‘갑질’의 피해자였던 그들이 이젠 달러를 지갑에 채우며 당당한 관광객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국으로 몰려 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간의 심각한 갈등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다. 실제로 지난 3월초 인도네시아 시멘트제조업체인 홀심(Holcim)사는 포상휴가 명목으로 600명의 모범 판매사원들을 강원도 일대로 단체관광을 보내 평창 스키장, 설악산에서 늦겨울의 정취를 맛보았다 한다.

2016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인구는 8천만명이며 2020년경에는 1억2천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다. 프라이스워터 하우스 쿠퍼스 컨설팅사에 따르면 2050년 국민총생산 규모 순위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에 오를 것이며 한국은 18위로 밀릴 것이란 놀라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 중산층의 밴드가 두터워질수록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서 더 많은 그들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온순하고 친화적인 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복궁 궁전이나 덕수궁 돌담길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짹떡 스갈리!’ 정도를 자연스럽게 던져주는 예의는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만큼의 호혜적 제스처가 아닐까? 파푸아주 4천8백미터 고산인 뽀작 자야산(Puncak Jaya)의 만년설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이들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젠 수까르노-핫따 공항에서 직항편을 타고 양양공항에 내려 설악산에서 심호흡을 한 뒤 평창의 설원에서 수없이 엉덩방아를 찧고 온천장으로 내려와 따끈한 온천수에 피로한 몸을 풀었다는 여행담을 자카르타의 어느 카페에서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털어 놓는 수다를 우리가 자주 엿듣게 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대사의 일기 제16화

# “경제에 매달리다” (주요 프로젝트)



지난 호에 이어

## 2. 사업

2006.12.4 노 무현 대통령과 SBY 대통령의 임석 하에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과 한국 산림청장 사이에서 산림협력에 관한 MOU가 서명되었다. 이 MOU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50만 헥타르 (제주도의 3.8 배 면적)의 조림지를 제공하고 한국 기업이 조림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인도네시아가 산림 강국이자 한국의 최대 목재 수입지라는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부임하였다. 부임하여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을 만났더니 칼리만탄 코린도 그룹 조림지를 가보자고 권하였다. 만약 Kaban 신임 산림부 장관도 함께 가면 전세 비행기와 헬기를 동원하여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솔직히 대사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기업 현장 방문은 조심스럽다. 대사관과 한국 기업의 유착 오해로 인하여 선배 대사들이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재국 장관하고 동행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조림지가 과연 얼마나 크면 장관을 전세기로 모셔갈 생각을 할까하는 호기심도 있었다.

그 후 산림부 장관을 예방하였다. 한국의 “산림청” 과 달리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은 정식 국무위원이자 경제부처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처이다. 수하르트 시절에는 정권의 “돈 줄”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성을 듣는 부처인지라 다소 긴장을 하고 산림부 장관을 만나러 갔다. 산림부 장관의 모습이 독특하다. 많지도 않은 턱 수염이 길게 나있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에 반장화 차림이다. 좋게 말하면 순박하게 보이는 “나무” 같은 인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산적(?) 같은 모습이었다. 군소정당의 당수로서 입각한 젊은 정치인이다. 첫 만남 후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다. 그는 영어가 서툴지만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에게 이 나라의 부정부패 문제를 포함하여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항상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대학생 때는 학생운동을 하였다고 하니 아직도 학생 운동하던 때의 순수함이 있었다.

## 한국 조림지를 가다

산림부 장관을 만나 코린도 그룹의 조림지(plantation)를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였더니 선선히 가보자고 한다. 이렇게 하여 부임한 지 4개월이 못되어 2005.9 조림지를 가게 되었다. 자카르타에서 전세 비행기로 출발하여 남부 칼리만탄 주 수도 공항에 내려, 다시 헬기로 이동하였다. 헬기 이동 구간의 상당 부분은 코린도의 조림지 위를 날아간다. 20 분가량 헬기 밑으로 펼쳐지는 조림지를 보면서 느낀 감동은 대단하였다.

한국 기업의 힘으로 서울시 면적에 맞먹는 크기인 9만 헥타르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헬기에서 내려 자동차로 조림지 한 가운데 있는 나지막한 구릉위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 눈길 가는 끝자락, 까마득한 곳에 산이 있고 그 지역 안까지가 모두 이 회사의 조림지이다. 외교관 생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진한 감동을 받았고, 한국 기업이 이렇게 넓은 땅에 조림을 하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긴다.

승 회장으로 부터 조림지 안내를 받으면서 고생한 이야기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조림지 목초지에서 수 백 마리의 소를 길러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지만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에서부터 현지 벌목공들과의 싸운 이야기 등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조림하였다고 한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림은 열대 기후나 풍토병과의 싸움보다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작업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땅만 주면 앞으로 얼마든지 더 조림하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 자신 있다는 승 회장의 답변이 나

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러나 외국인이 조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였다.

## 한. 인도네시아 조림 MOU

한. 인도네시아 산림 협력이 추진력을 받게 된 것은 2006.12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계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과 한국 산림청장 사이에서 산림협력에 관한 MOU가 서명되는 장면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50만 헥타르의 조림지를 제공한다는 소식은 모든 한국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고 우리 기업들은 크게 환영하였다.

이 협정 체결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에게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산림 부를 설득하여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대사관의 박종호 산림주재관(산림청 소속)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성과 사업의 하나로 조림 사업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세계기후변화협약(소위 “교토 의정서” 후속 합의서)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두고 조림지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산림주재관은 우리 기업들이 조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방문 때 이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나 또한 코린도 조림지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탓에 양국 산림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기로 하였다.

내가 박 주재관에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제시할지 좋겠느냐고 묻자 코린트의 조림지 규모를 상정하여 10 만 헥타르를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해 내가 통 크게 100만 헥타르를 밀어붙이자고 하자 그는 어안이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조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10 만 헥타르의 조림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이 나라에 코린도 조림지의 10 개 정도를 조성하자고 하면서 고집하였다. 결국 두 사람의 중간 규모인 50 만 헥타르를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하여 50 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MOU 체결에 대하여 저항도 있었다. 청와대 의전은, 청장급이 서명하는 자리에, 그것도 정부간 협정이 아닌 부처 간 협력서(MOU)에 대통령이 임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나 나는 양국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서명된 문서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여러 채널을 통하여 대통령의 임석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결국 현지 대사의 주장대로 양국 대통령이 임석 하에 서명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림 부는 50 만 헥타르를 제공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동의하였다.

## 한국 기업들이 크게 환영

한국 기업들은 조림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크게 환영하였다. 대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조림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 9위(당시)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다. 만약 교토 의정서 후속 협약이 타결되면 한국은 석유화학 등 굴뚝 산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조림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조림

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림 대상지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이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최적이라고 한다. 국토면적이 대부분이 열대림 지역이고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빠르며 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남미 등 다른 지역보다 현지인들과의 감정 소통이 훨씬 용이하다.

둘째,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 이상 자연 열대림의 벌목을 허가하지 않고, 스스로 조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공 목재의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십여 년 전까지 설 연휴가 되면 우리 TV는, 우리 기업들이 열대 우림 속에서 거대한 아름다리나무를 전기톱으로 쓰러뜨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추운 겨울 날 TV를 보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하는 열대림의 풍경도 색다르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기업의 진취성을 보여주려는 방송사의 의도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러한 벌목의 상당 부분은 심각한 산림 훼손이자 불법적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 전부터 벌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벌목한 만큼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기업들은 나무 심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내가 동부 칼리만탄 州 Samarinda를 방문하자 주지사는 과거 한국 기업이 울창했던 그 지역의 열대림을 모두 벌목하고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노





골적으로 불만하였다. 산에 나무가 없어서 우기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홍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민 기업인에 의하면, 그 주변을 흐르는 강(Mahakam)이 한때 별목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기업이 고용한 별목공(한국인과 현지인)과 지원 인력이 사는 대단지 캠프까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나무도, 기업도, 별목공 캠프도 없지만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조림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이때 50만 헥타르의 땅을 확보하였으니 우리 기업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명박-SBY 자카르타 정상회담 계기(2009.3)에 한국은 바이오매스 우드펠릿용 조림지 20 만 헥타르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아와 같이 정부가 선도적으로 조림 열기를 북돋우는 한편, 인도네시아 樹種 개발, 산림보호, 산림관광 등 여러 분야의 산림 협력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한. 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체결(2011.11 발리),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AFoCo, 본부 서울) 등 조림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에도 앞장섰다.

### 그러나 사그라지는 조림 열기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MOU에 따라 조림 경작 대상지를 제시하였고, 십여 개의 한국 산림업체들이 공동 조사에 참여 하였다. 동 조사는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마음에 드는 땅을 찾지 못하였다. 사실 조림 전문가들은 조림에 맞는 땅을 몇 개월에 찾는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기후, 배수 및 홍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한 해 가뭄이 들다가 그 다음해는 홍수가 들 수도 있고 산불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조림지를 찾는 작업은 몇 년이 소요된다. 더욱이 현지인들과의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있어야 한다.

나는 대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까지 상기 MOU에 따른 성공 사례를 단 한 건이라도 성사시켜보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 산림조합 중앙회와 인도네시아 국영 산림 단체 사이 조림지 합의, 중부 칼리만탄 지역 및 파푸아 지역의 조림 지 타결에 힘을 기울였으나 어느 하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조립이란, 흔히 10년 동안 수확 없이 투자만 계속하지만 일단 조립에 성공하면 그 후 40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러나 10년 내 실패의 확률도 높다. 정원수라도 한 그루 심어 본 사람들은 나무 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1-2년 만에 계약 성사와 사업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립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2006년 MOU 체결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 기업의 해외조립 열기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가 직접 조립하거나, 아니면 조립된 지역을 사서 운영하는 건수도 늘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러한 조립 열기가 크게 사그라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국제 경제의 하강 국면 등 국제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선, 우리 기업(국영기업 포함)의 해외투자 열기가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 풍토에 비추어 10년 동안 소득 없이 투자만 해야 하는 해외조립에 투자하기 힘든 현실이다. 대기업 임원에게 조립문제를 이야기하면, 자기는 10년 이후 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기업 오너나 CEO에게 건의하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렇다고 대기업 오너가 직접 관심을 갖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외조립 사업은 정부가 나서야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조립지 확보를 지원하고, 정책 금융을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들을 독려하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분야이다. 작년 세계기후변화협약이 타결되었고 한국은 35%의 탄소배출 삭감을 공약하였다. 우리 정부가 해외조립을 이대로 방치하거나 기업에게만 맡겨서 안 된다. 정책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식목일

2007.11.28 이 나라 식목행사가 처음 개최되었다. SBY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전 각료, 사회지도급 인사, 및 많은 대사들이 참여하였다. SBY가 기념식사 첫 부분에 “한국 대사를 포함 많은 대사” 들이 참석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한국 대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왜 SBY가 한국 대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을까.

나의 추측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산림부 장관에게 한국 식목일의 역사를 설명한 적이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에는 매년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공무원, 학생, 모든 민간단체들이 참가하는 거국적인 식목 행사를 하였다, 인도네시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나무심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Kaban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식목일에 관한 자료를 산림 부에 제공하였다. SBY가 직접 참가하는 식목행사가 인도네시아 전국적으로 거행되고,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한국 대사를 가장 먼저 지칭한 것을 보면, 한국의 식목일 역사가 SBY에 입력되었음이 틀림없다. 그 이후에도 SBY 대통령이 식목일 행사를 매년 실시하였다고 한다.

SBY 식목행사 전에, 인도네시아 산림부 직원, 한국 교민, 대사관 직원들이 참가하여 자카르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다. Kaban 장관, 나, 승은호 한인회장도 참가하여 나무를 심었다. 내가 한국 교민회와 대사관이 매년 이 지역에서 식목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자, Kaban은 이 지역을 한국 교민회 식목장소로 무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금도 대사관과 한인회가 매년 식목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 호에 계속

# 조코위 “한국, 인니 관광·창조산업에 투자해 달라”



▲ 14일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3월 14일 코트라(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의 공동 주최로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에선 관광업과 창조적 산업의 발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와 있다”면서 “물질적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이 시대에는 새로운 체험과 추억을 만들고 공유하는 행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인도네시아 경제 또한 서비스 산업 쪽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여정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주요 기업인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과 코트라는 이날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양해각서가 정식협약으로 체결되면 두 기관은 합동으로 투자홍보 활동을 하고 시장 보고서 등 투자 관련정보를 상호공유하게 된다.

토마스 렘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이번 MOU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2012~2016년 사이에만 인도네시아에 75억 달러(8조6천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이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것이다.

[연합뉴스]





## 2017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정기이사회

3월 9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리즈칼튼(꾸닝안 소재)호텔에서 한인회의 명예 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한인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양영연 한인회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회장인사, 한인회 주요활동과 결산보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지난해 한인회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해 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인회 소속 단체인 한인뉴스, 문화예술총연합회, 한인청년회,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간략한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와 계획을 발표했다.

강희중 수석부회장은 재외동포재단 지원하는 한.인니 친선 한복 패션쇼 개최, 한인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송년회, k-pop 콘서트를 추진 예정이라고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며 한국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본 이사회 후 참석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화합하는 한인회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날, 재외동포신문이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향상에 애써온 숨은 일꾼을 발굴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 13회 발로 뛰는 영사상’ 총영사부문을 수상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이명호 총영사에게 상을 전달했다.

지난해 이명호 총영사는 한인회와 함께 교민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사후 처리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규모 시위 발생 시

실시간으로 교민들에게 현지 상황을 전달하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

이명호 총영사는 “내가 받아왔던 상 중에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이다. 앞으로도 동포사회를 위해 더욱 더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본 회의에 앞서 삼성전자 이강현 상무는 ‘스마트폰 즐기기’란 주제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기, 명함저장, 인니공항 출.도착 정보 등 우리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강의했다.

한인회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을 보며 준비한 만찬을 즐기는 가운데 이사회는 마무리 되었다.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 재외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 인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30일 마감, 대한민국 제 19대 대선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과 관련, 31일 오전 7:00 기준, 총 5,838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은 3월 30일 마감했고 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 까지 실시된다.

옥미선재외선거관은 “국외부재자는 투표하려면 반드시 매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외부재자 신청방법은 △인터넷 <http://ovanec.go.kr>에 접속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대사관) 또는 전자우편 송부([ovindonesia@mofa.go.kr](mailto:ovindonesia@mofa.go.kr)) △영사관 방문 또는 출장접수 등이 있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5일에 마지막 출장접수를 나갔다. △25일(토) 무궁화 본점, 찌까랑점, 성요셉성당 △26일(일) 늘푸른교회, 성요셉성당, 주님의교회, 열린교회, 땅그랑 교민교회 등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22만2,289명(10.1%)이 등록했고, 15만8,2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영구명부제에 의해 등록된 4만4,073명을 포함하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은 지난 18대 대선의 숫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며 “재외선거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등록을 독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재외선거등록 신고·신청 접수현황은 3월 3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예상 선거인수 32,187명, 신고 신청자수 5,838 명으로, 신고율이 18.2%이다.



▲ 리뵘 가라와찌 지구 소재 아마르따뿌라 아파트 로비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데스크. (땅그랑 한인회 제공)

# 델타마스에 한국교육단지 (Korea Education Complex)가 완공되다

두란노인도네시아재단 (FDI)는 지난 3월 7일 인도네시아에 수준 높은 한국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교육단지(Korea Education Complex / 이하K-eduplex) 완공식을 델타마스에서 가졌다.

약 2억5천 인구를 보유해 세계 4위의 인구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가능성의 땅이다. 그럼에도 취업인구의 76% 정도가 초등교육만을 받은 상태로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기업을 일군 교민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났고 이에 다양한 교민 그룹이 참여하여 2006년 대학 설립의 모체가 될 두란노인도네시아재단을 출범시켰다. 더불어 필리핀, 미국 등 해외에서 사업을 일군 많은 한인 기업가들이 기부에 동참하면서 인도네시아사회와 한국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K-eduplex의 건축이 2016년 4월에 시작이 되었으며, 이듬해 2017년 3월에 완공식을 가질 수 있었다.

두란노인도네시아재단은 신도시 델타마스에 50,008m<sup>2</sup>에 달하는 캠퍼스 부지를 구입해 한국형국제대학을 포함한 한국교육단지 건설을 준비해왔다. 델타마스는 자카르타 동쪽 고속도로 37km에 위치한 신도시다. 인도네시아 기업 시나르마스(PT Sinar Mas)와 일본 소지츠(Sho-cho)의 공동투자자로 개발된 계획도시이자, 자카르타와 반둥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 향후 교육환경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2014년 국제전문인도시건축봉사단(BaMI)의 협력으로 ‘한국교육단지’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였다. 2016년 3월 7일에 캠퍼스 첫 건물의 완공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K-eduplex는 회계학과와 컴퓨터학과 대학시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K-12 시스템을 갖춘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와 대안학교, 국제적 수준의 언어교육원,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망라한 전문교육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두란노 교육재단은 향후 건축계획을 크게 4단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제1단계(2016~2017): 교육복합동 완공 및 건축기금마련, ▶제2단계(2017~2019): 기숙사동 준비 및 완공, ▶제3단계(2020~2021): 도서관, 체육관 등 증축, ▶제4단계(2021년 이후): 교직원 숙소동을 완공을 통해 교육문화복합단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을 받아 학생수 2400여명, 교직원 150여명의 규모의 종합대학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eduplex의 공동설립자이자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용규 교수는 “현지에서 인력 수요가 높은 IT 기술, 경영, 어학 분야의 학과들을 중심으로 개설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며 한국 투자 기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정부공무원, 현지 지방정부 교육부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현지교민들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민주평통 제17기 아세안 지역회의, 청년컨퍼런스 및 간부 워크숍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평통) 아세안지역회의(32개국, 9개 협의회/부의장 송창근, 동남아남부 협의회 회장 전민식)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당성, 북한인권문제, 통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3월 24일, 첫날 개막을 알리는 만찬이 ARYADUTA LIPPO VILLAGE (땅그랑 소재)에서 열리고 다음날 KMK 행사장에서 본 행사가 이어져 2박3일의 일정을 진행했다.

민평통 내 만45세 이하의 위원들을 청년이라 칭하며 작년 첫 세계 청년컨퍼런스를 두바이에서 개최한 이후 미주, 중국, 유럽등 각기 다른 지



좌로부터 송창근부의장,  
전민식회장,양영연한인회장

KMK 산업시찰



역회의에서 청년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금번에는 아세안 지역회의 청년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지역 외의 타 지역에서도 참석하여 그 열기를 더했다.

분임토의 주제 내용은 외국에서 살아가는 청년 위원들이 평화통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라던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위의 건에 대해서는 통일골든벨 행사, 영화 행사, 한글 글짓기 행사, 같이걷기 행사 심지어 북한인권법 상정등을 위해 세계각지에서 청년들이 발로 뛰며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나눴다.

특히 한국 영덕협의회와 부산청년들이 참석한 본 컨퍼런스에서 모국 민평통 자문위원들은 모국내에서 보다 활발한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놀라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 한마음축제는 나눔의 잔치로 이어지고...

일시 : 2017년 3월 18일 (토)

대상 : 인니영세민 700세대위문

주최 :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위문품 : 닭튀김 도시락 700인분 및 먹거리 .음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배연자회장은

“제98주년 삼일절기념 한마음 축제를 한인회 및 단체와 기업체의 후원으로 보람있게 마치고 이젠 이곳의 이웃들과 나눔을 가졌습니다.

도시고속도로지하 땅바닥에서 거주하고있는 다세대지역 영세민 주민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재인도네시아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라며 그날의 감동을 전했다.

## 한인청년회 4기 회장 정제의 당선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한식당 하누에서 열린 한인청년회 정기총회에서 정제의 사무국장이 4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종현 3기 한인청년회장은 새로운 청년이 새로운 한인청년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며 차기 회장에게 덕담을 건넸다.

정제의 신임회장은 2년 동안 펼칠 포부로 한인회 행사지원과 봉사활동,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킹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인청년회는 한인회 청년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만45세 이하 청년들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문의: 하영빈/이동규 총무 [kiyajakarta@gmail.com](mailto:kiyajakarta@gmail.com)





## 서울예술대학교와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 융합 실험

###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2016년에 이어 문화 예술 프로젝트 연결 파트너

서울예술대학교는 2015년 자카르타예술대학 (IKJ) 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2016년 반둥에 위치한 반둥공과대학(ITB), 텔콤대학교(Telkom) 및 한\*인니문화연구원과의 MOU 체결, 2017년 족자와 발리까지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며, 3년째 인도네시아와 활발한 문화교류 프로젝트 및 국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 간의 교류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유덕형 총장의 비전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뿌리 깊은 전통 및 역사, 다양한 문화를 한류문화와 융합을 통해, 서울예술대학교가 미래의 한류, 글로벌 문화운동의 길잡이를 해야 한다고 유덕형 총장은 강조한다.

인도네시아의 서울예술대학교 방문도 동시에 활발하게 이어졌다. 2016년 ITB의 Kadarsah Suryadi 총장과 교수진, 텔콤대학교의 교수진들이 방문하였다. 같은 해 한\*인니문화연구원 주관으로 패션디자이너이자 예술교육가인 하리 다리소노가 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6월에는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공학센터(ATEC)에서 '시간의 축적; 바틱(Batik), 인도네시아의 전통예술혼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국악 및 디지털 아트 등을 접목시킨 융합공연·전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예술과 한국의 공연 기술을 접목하여 뉴 폼 아트(New Form Art)를 만들고자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고, 인도네시아 문화가 생소한 교내 학생, 교수 및 외부 인사들에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2017년 국제협력 프로젝트

2017년 1월~2월, 서울예술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자카르타, 반둥, 족자, 발리 등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자신의 전공계열 아티스트 및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도

모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반둥의 ITB내에 컬처허브(CultureHub) 인도네시아 스튜디오를 올해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컬처허브는 서울예술대학교가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이탈리아의 스폴레토와 같은 세계 문화예술의 주요 거점 지역에,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과 세계 문화 예술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Tele-Presence' (원격 현존감: 컴퓨터를 원격지와 연결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 통신을 통한 상호 작용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를 이용한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21세기형 예술창작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의 첫 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컬처허브 스튜디오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더 활발한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족자지역의 바틱 장인 Agus Ismoyo와 Nia Fliam, 월드뮤직의 대가 Djaduk Ferianto,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 Wayang Kulit의 장인 Ki Catur,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갈롱의 장인이자, 반둥 앙갈롱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Sam Udjo 등이 컬처허브에서 만나게 될 예술가들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세계적 관점에서 문화 예술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예술 교육과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업으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교류사업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문화원의 김석기 원장과 오랫동안 현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리 역할을 해 온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사공경 원장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서울예술대학교 제공)



집중! 이 사람

## 현장중심의 마케팅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세계푸드 글로벌 **업정호 대표**



### 1. 사업배경과 스토리

지금껏 많은 식품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에 강의와 컨설팅을 하였는데, 왜 이분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회사가 없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실력으로 충분히 유니레버, 네슬레, 아지노모도 정도는 아니라도 태국의 CP그룹,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인도푸드 정도의 회사는 있을수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상품개발(R&D)실력은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농심의 신라면, 삼양의 불닭볶음면 등 뛰어난 제품들이 있지요. 그러나 해외현지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않아 시장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글로벌 경영마인드와 특히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직접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라면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소싱과 R&D 회사입니다.

즉 각 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싱때는 연구 개발하여 그 나라 또는 타국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론칭한지 얼마 안돼 아직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제와 메단에서부터 깔리만판, 술라웨시, 자와, 발리, 암본, 파푸아까지 저희 제품을 팔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매장 별로 어떻게 실판매되고 있는지 그 상황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식품업체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몇몇 ‘한상’에만 의존한 채 실상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달라져야 할겁니다.



## 2. 회사의 상품소개, 매출규모, 경영노하우

저희는 1단계로 할랄인증을 받은 한국라면 4종(소고기버섯, 머드크랩해물, 김치, 김치볶음 등)을 출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신제품이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려고 합니다.

매출은 지금 현재 4월부터 월평균 640,000봉이 판매가 되고, 신제품 출시 이후 3/4분기부터는 월 1,000,000봉이고 4/4분기에는 월 1,500,000봉 판매가 예상됩니다.

저희 제품 경쟁력은,

첫째, 한국라면중 유일하게 MUI에서 할랄인증을 받았습니니다.

둘째, 가격경쟁력입니다. 원료는 더 자연에 가까운 고가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유통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판매관리비를 줄인 탓입니다.

셋째, 저희 제품의 스프를 개발한 팀들은 한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팀들입니다. 품질, 맛 등에 있어서 그 어떤 제품보다도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통기한을 최대한 줄여 신선도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유통기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면은 일부 한국라면 매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사람들은 두터운 면을 좋아하지 않아 한국면과 인도네시아면의 중간형태를 취했습니다. 저희는 입점율과 좋은 매대 위치 확보, 현장 시식활동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영업활동에 중점으로 하고 있고, 지금 SNS로 경품잔치등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3. 현재상황 (애로사항과 올해 전망)

역시 사업은 Cash Flow가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은행들이 저희 같은 비전있는 회사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면서도(현재까지 불량채는 제로), 브랜드사업이고, 수익률 또한 뛰어납니다.

사업 시작한지 2년 차에 손익분기점은 넘었고, 올해 2/4분기부터는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등에 수출도 시작하여, 연말에는 월 100만불 매출이 기대됩니다.

## 4. 한인사회에 하고싶은 말

첫째, 저희 제품의 타겟층은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이곳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인이 1백2십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르바란 때 직원선물용으로 저희 제품 선물세트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회사에 다니면서 할랄인증 받은 한국제품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 5.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매월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주고 있어 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무의욕이 고취되어 생산성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4가지 종류로 다양하고, 르바란때 식구들과 같이 한국의 맛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업체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격대 부담도 없고, 저희는 인도네시아전역에 조직이 있어 어느 지역이든 배송이 가능합니다.

둘째, 한인분들에게는 중간 유통 마진없이 직배송 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부들께서 한국에가서 라면을 사웁니다. 유통기한 1년이 아니라 6개월 라면으로 사오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번거로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개발하여 품목도 확대하고, 한국의 식품업체들과 제품도 공동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소식품업체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를 인도네시아와 또는 타국(동남아와중동지역)에서 고용확대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너무 좁습니다. 한국에서 뛰어나와 세계구석구석에서 어떤 형태든 기회를 주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지인 영업조직(판매회사/대리점)을 관리하는 소사장 시스템 같은 것 입니다 .그리고 신제품 담당등 젊은이들한테 줄 사업아이템들이 많습니다.



● 3월 16일, 엄정호대표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양영연 한인회장) 방문하였다



## 칠곡군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 방문

백선기 칠곡군수가 이끄는 ‘칠곡군 동남아 무역사절단’이 지난 13일 인천을 출발하여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백 군수와 9개 업체 대표들은 현지 업체를 방문하고 활발하게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번 칠곡군 동남아 무역사절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거래선 발굴을 위해 지난 13일에서 22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방문했다.

업종은 산업용 안전장갑 생산업체에서부터 섬유,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용기 및 농산물포장용포대, 부직포기계, 생활용품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백 군수는 지난 15일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와 한인회(회장 양영연)를 찾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정착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칠곡군 수출상담회 홍보 및 무역투자 교류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칠곡군 무역 사절단은 14일 자카르타 단체 상담에 이어 16일 태국, 19일 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하고 세일즈를 이어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도움으로 무역사절단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으로 모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양영연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5만여 한인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칠곡군과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교류와 유대를 강화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와 구미시를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평균연령 38.5세, 인구 13만의 젊고 활기찬 도시로 전국에서 군 단위 지역으로는 인구가 4번째로 많다.

또 예로부터 국방의 요충지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이다. 특히 6.25전쟁 당시에는 칠곡 다부동 지구 전투의 승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 자랑스러운 호국과 평화의 도시이다

최근에는 평생학습, 인문학, 나눔의 도시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백선기 칠곡군수의 취임이후 고질적인 지방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상에 이름을 올리며 일자리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자리매김 하며 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 Mock Exam



(학생기자 JIS 김재호)

12학년 IB/AP 학생이라면 꼭 경험해야 하는 Mock Exam 이 끝이 났다.

Mock exam은 Real IB/ AP exam 이 있기 한 달 전에 학교에서 모의로 보는 시험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모의고사’ 라고 부른다. 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IB/AP 본 시험 전에 시험이 치러지는 방식과 나오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선생님은 IB Diploma에 필요한 공식 IB 시험 준비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Mock exam은 실제 IB 점수에 반영되진 않지만, 현재 성적과 IB Predicted grade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시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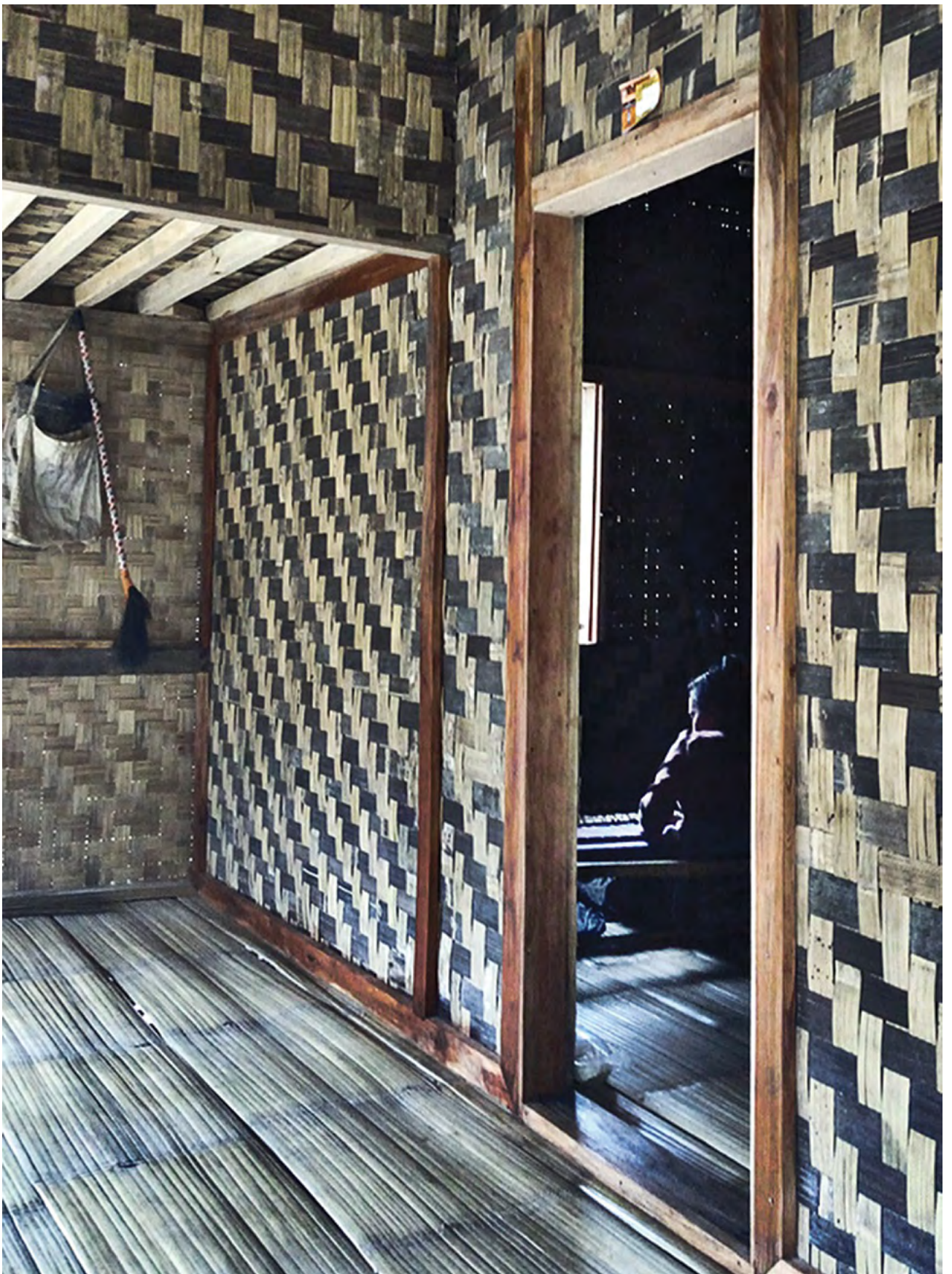
학생들은 Mock exam 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데, 같은 과목을 시험 보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동안 배웠던 과목들을 복습하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공부하기, 또 꼭 외워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시험해보기 등 많은 방법을 총동원하며 시험 준비를 한다. 친구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 등을 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들을 친구를 통해 알 수 있고, 친구가 몰랐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이해를 도와주기도 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팁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공식 IB 시험들을 최근 것부터 차례대로 많이 풀어보는 방법또한 좋다고 생각한다.

JIS의 하이스쿨 도서관에 가봤는데, Mock exam을 앞둔 12학년 학생들끼리 도서관을 꽉 채워서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Mock exam 이 끝나는 날, 마지막 시험을 치루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후련한 모습을 보이며 다음 주에 있을 봄 방학 계획을 짜는 모습도 보였다.

Mock exam 이 끝나면 봄 방학이 일주일간 있는데, 많은 JIS 졸업반 학생들은 봄 방학을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으로 발리를 가기도 하고, 자카르타에 남아서 쉬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일주일간 가족들과 만나는 등 각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이 외수-

## 2017 'JKKS 초등 신입생 입학식



‘G.R.O.W JKKS’ 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KKS, 교장 백우정)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본교 나래홀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42명의 신입생들이 6학년 선배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신입생에 대한 입학허가, 5,6학년 학생들의 선물증정식, 1학년 담임교사, 부장 및 교과 담당교사들의 소개가 있었다. 입학식이 끝난 후 반별 촬영 및 각 반에서 담임교사들의 학교생활 안내가 이어졌다.

백우정 교장은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님들의 귀한 자녀들을 맡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2017학년부터 캠브리지 교육과정 영어수업을 통한 영어교육의 질 향상, 전 학년 주당 2시간씩 확대 편성된 인도네시아어 수업 실시, 전 학년 동아리활동 실시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우리가 해 냈다”

## 인도네시아 실업계 공립고등학교 SMK NEGERI 1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



인도네시아의 순수하고 작은 모임인 인우회(회장: 신동수)에서 누구도 할수 없었던 큰 일을 해냈다.

지난 3월 인우회에서 꾸준히 한글 교육을 지원하던 인도네시아 실업계 공립고등학교 SMK NEGERI 1에서 오는 7월 다음 학기부터 한국교과과정이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정규수업과정으로 채택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의 한류열풍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교육청의 제2외국어 선택 과목중 처음으로 한국어가 들어가게 되었다.

초중고 교과과정에 우리 한국어가 당당히 제2외국어로 선정되어 정규수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현지 실업계고등학교에 한글교육을 특별활동, 과외 시간을 통해 약 10여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정규 교과과정 편성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인우회의 뚝심 봉사가 비로소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인우회는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넘긴 인도네시아 내 자생단체로써 13명의 소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개인이 자기사업을 하고 있고 한글 지원외 지역봉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글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 선발하여 매 3개월마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7월 신학

기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번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한 실업계고등학교 SMK NEGERI 1에 인우회 경비로 한국어교사 지원, 교재지원, 한글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등을 지원했고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을 지원할 경우 대학학비까지 지원하는 큰 일들을 해왔는데 현재 이 학교의 학생 6명이 UNAS대학 한국어과를 진학해 학비 전액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인우회 신동수 회장은 인우회 창립원년부터 현자인 한글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8여년간 추진해 주신 이종윤 명예회장의 노고와 애정에 감사를 표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전역에 우리 한국어가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차세대 한,인니간 우호와 협력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표했다.

한편 SMK NEGERI 1에는 총 1680명의 학생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존 해왔던 방과 후 한글교육은 계속 진행하면서 평일 정규수업을 할 것이라는 학교측의 의지도 보여졌다.

당장 정규수업을 위한 한국어 교사에 관한 문제와 교재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정규 교과과정 채택이라는 가장 어렵고 큰 일들을 해낸 인우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하겠지만 이후의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초중고에 많은 학교가 한글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을 채택해 자리잡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보여주기식 성과위주의 지원보다 한글전파의 세계화에 걸맞는 실효성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각 인도네시아 내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에서 인우회의 한글교육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많은 학교에서 한글교육의 정규교과과정 편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제공:미디어코리아)





## 집단빙의 III (끄수루빠 마쌀 / Kesurupan Massal)

지난호에 이어

### 빙의상황에서의 대처 수순

#### 1. Memohon Perlindungan kepada Allah SWT

기도를 통해 신의 보호를 구한다.

#### 2. Mengevakuasi Korban

빙의된 사람을 빨리 후송한다. 빙의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들 역시 빙의되기 쉬우므로 빙의자를 그들로부터 빨리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악마는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그렇게 한다 해서 빙의의 전염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소한 공포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3. Memberikan P3K (Pertolongan Pertama pada Kesurupan)

응급조치로서 우선 누구든 먼저 코란을 읽기 시작하고 그 사이 경험있는 우스탁 (Ustadz-이슬람선생)이나 루키아(Ruqyah-이슬람퇴마사)를 찾아 모신다.

#### 4. Menenangkan Orang di Sekitar Korban

빙의자를 격리시킨 후 그 주변사람들을 진정시킨다. 놀라 넋을 놓고 스스로 추스리지 못하면 악령이 틈타 빙의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모두 모여 퇴마의 기도문을 함께 읽는 식으로 사람들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 5. Menghubungi Kerabatnya

빙의자의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이슬람의식 외에 추가적으로 이슬람되마사나 두꾼의 손을 빌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족들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다..

## 6. Meluruskan Akidah dengan Menkuatkan Iman

올바른 의지로서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한다.

## 7. Bertawakkal kepada Allah

올바른 신앙의 열매는 알라에 대한 내적 신념을 더욱 다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출처 - <http://pusathalal.com/konsultasi/konsultasi-alam-ghoib/item/688-soal-kesurupan-massal>)

6,7번은 너무 상투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집단빙의사태를 맞은 공장의 한국인매니저가 공포에 질린 종업원들에게 6, 7번의 얘기를 해 주는 건 분명 의미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로써 집단빙의현상의 대부분 측면들을 한번 둘러 본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빙의현상과 관련해 앞서 명때리는 ‘빙용’ 상태에서 과생되는 라따한(Latahan) 이라는 버릇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버릇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라따’ (Latah)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빙용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놀라게 되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말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심한 경우엔 그리 놀랄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사실은 같은 충격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 다음 상황을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웅당 취해야 할 반응 대신 계속 깜짝 깜짝 놀라며 엉뚱한 반응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놀라서 갑자기 튀어나온 대답을 한 번 더 되뇌이는 식으로 같은 대답을 두 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는 깜짝 놀란 인도네시아인들이 필쩍 뛰면서 “쪼뵈” (copot)!, 이뵈, 끈뵈 등등의 말을 내뱉는 것인데 한국사람이라면 ‘어머나!’, ‘엄마야!’, ‘맴소사!’ 정도, 양식있는 무슬림이라면 ‘아스타필루라짐’ (Astagfirullahaladzim) 정도면 될 상황에서 거의 번역이 곤란하거나 심히 부끄러운 욕설 비슷한 것을 입에 담으며 무의식적으로 오버하곤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죠.

놀라서 말이 헛나오는 정도뿐이라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따’ 한 친구에게 어떤 행동을 갑자기 취해 보여주면 사전에 아무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내가 한 행동을 급히 따라하거나 그 행동에 반응하는 어떤 행동을 취해 보이거나 말을 내뱉는 겁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요. 언젠가 아이스크림 파는 자전거가 길모퉁이를 가까이 지나쳐 거기 멍하니 서 있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 이런, 이런...’ 하면서 자전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반사적으로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며 춤을 추던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건 ‘라따’ 한 상태가 매우 심한 것인데 보는 사람은 배꼽을 잡고 웃을 지도 모르지만 막상 당사자는 몹시 힘들어 하는 모양이더군요. ‘라따’ 상태가 심한 사람들의 동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영향에 대해 유달리 더욱 민감하고 구체적으로 반응을 보이므로 많은 경우 사람들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대비해도 절대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견 최면술 같은 것에도 쉽게 걸릴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발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 **Polisi Beri Tips Hindari Kejahatan Hipnotis**

경찰이 알려주는 최면술범죄 피하는 방법들 CNN Indonesia 2014. 12. 13

(전략) 6. 최면술사기를 피하려면 주변에 라따(Latah)한 사람과 함께 다니세요. 라따(Latah)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버릇 같은 것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 제시된 최면술 암시를 없앨 수 있습니다. (후략)

(출처 - <http://www.cnnindonesia.com/nasional/20141212181402-12-17818/polisi-beri-tips-hindari-kejahatan-hipnotis/>)

얼핏 최면술에 가장 잘 걸릴 것 같은 이 ‘라따’ 한 사람들이 오히려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 스스로 독특한 나름대로의 반응방식을 가지고 있어 최면술사가 기대하는 보편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엉뚱한 대답을 두 번씩 몰아서 하는 버릇 때문에 최면술사의 암시가 깨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병용’ 상태의 최대 적인 최면술을 ‘라따’ 한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 ‘라따’ 한 사람들은 꼬수루뻘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집단병의의 속성 중 하나가 공포를 매개로 한 집단적 암시인데 그 암시가 ‘라따’ 한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생산공장의 2층 현장 사무실에서 집단병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작업장을 내려다 보는 광경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사람들을 마구 쓸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라인에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통째로 비명을 지르며 넘어가거나 검품조에서 비명을 지르는 여종업원을 중심으로 반경 7-8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미친 듯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중엔 정말 ‘라따’ 가 심한 사람도 있어 잔뜩 겁먹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나 소동에 자기도 일단 화들짝 놀라며 남들 같은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다들 쓰러져 거품을 무는 와중에 혼자 멀쩡한 게 뺄쫂해 반 박자 늦게 쓰러져 애써 귀신 들린 척 연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 집단병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 인도네시아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세미나 | 2017년 4월6일 (목)

-  장티푸스의 원인과 증상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습니까?
-  인도네시아의 의료 수준과 의료 환경,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  교통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그곳에서 수혈을 하고 수술하시겠습니까?
-  당신의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지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당신이 있는 건물에서 무차별 총기난사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장티푸스와 같은 수질성 질환,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의료적 문제와 잦은 시위, 확대되고 있는 테러 등 보안적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질병이 발병이 되거나 사건 발생 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인지는 개인 신변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인터내셔널SOS가 공동 주최하는 본 세미나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계신 기업의 한국인 임직원 및 가족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의료 및 보안의 현실을 알아보고, 이에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비, 대처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인도네시아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주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인터내셔널S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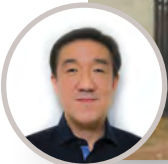
날짜: 2017년4월6일 (목)

시간: 14:00 ~17:00 (약 3시간)

장소: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층)

문의: 081298816816/08121960308/ 0215212515

## 공유경제의 명(明)과 암(暗) 2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지난 번 칼럼에서는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을 때 공유경제가 만들어낸 비즈니스가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공유경제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출장을 가면 대부분의 숙소를 Airbnb를 통해서 예약하며, 출장에서도 교통 수단은 대부분 UB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도시락 하나를 시켜 먹어도 고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없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경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경제는 항상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준 선한 존재로만 인식되어야 할까요?

UC버클리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는 ‘말이 좋아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이지 실제로는 부스러기 공유경제(Share the scraps Economy)’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분노에 찬 글을 올립니다. ‘목돈(Big Money)은 소프트웨어 오너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남은 부스러기들(Scraps)만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고 주장합니다.

노동과 분배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실제 공유경제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고 있는 사업분야입니다. 한국에서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여전히 불법인 부분은 과도한 정부규제로 비판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 봐야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공유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 위해 저희에게 익숙한 서비스인 우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버는 콜택시 중계를 하지만 실제 콜택시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잠시 차가 놀 때를 이용해서, 또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자신의 차를 타인에게 공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자원이 아닌 잉여의 자원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우버는 이런 ‘잉여자원’ 과 ‘소비자’ 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자(Middleman)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세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중개’, ‘자동화’, ‘최소한의 고용’ 입니다. 일반적인 대규모 IT기업들이 가지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버의 기사들은 우버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지, 정식 고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사람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직은 기계가 할 수 없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순작업에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 이 중개시장에서 잉여자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도네시아 우버 기사 중에서 자신의 차를 가지고 자신의 여가 시간에 우버를 하는 기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사가 렌터카를 빌려서 직업으로서의 우버 기사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택시보다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버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치를 확보하기 시작한 순간 우버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거나 인간이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큰 기업이 이익을 취함에 있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도 우버 기사도 고젝기사도 그저 큰 기업의 소모품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진과 관련된 유명 회사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옛날에 사진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는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 인스타그램의 직원 수는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코닥이 전성기 시절에 고용한 인원은 1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한 기업은 최소한의 고용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IT기업들이 요즘은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를 통해서 온라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에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소송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택시기사의 데모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O2O기업이 대규모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나 법적인 문제도 끝내는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공유경제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비즈니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보상이 주어지는지, 현재의 환경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일반현황과 전망

글: 우리소다라운행 김용욱상무



개인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은행에 예금을 하여 원금 보장을 받으면서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의 책임하에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은행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잘 알고 있으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는 2007년 Surabaya Stock Exchange가 JSX(Jakarta Stock Exchange)에 합병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지수로는 ①JCI(Jakarta Composite Index,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 ②LQ45(45개 시가총액 상위기업으로 구성), ③JII(Jakarta Islamic Index, 이슬람율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적용, 30개의 종목으로 구성)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가지수(JCI)는 2015년 조정기간을 거쳐 2016년에 15.32%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점진적인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 43%, 국내기관 42%, 개인투자자 15%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37개의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래 호가단위는 가격범위에 따라 1 ~ 25로, 각각 20% ~ 35%의 가격제한폭이 있습니다.

### 【IDX 주요지표】

단위 : 조 IDR	2016	2015	2014
주가지수	5,296.71	4,593.01	5,226.95
등락	+15.32%	-12.13%	+22.29%
상장기업 (개)	537	521	506
시가총액	5,754	4,872	5,228
거래대금	1,844	1,406	1,453
외인순매수	16	-23	43
환율 (IDR/USD)	13,436	14,657	12,436



가격범위	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비고
기준가 < Rp 200	1	35%	거래단위 1LOT = 100주 (정규시장기준)
Rp 201 ≤ 기준가 < Rp 500	2	25%	
Rp 501 ≤ 기준가 < Rp 2,000	5		
Rp 2,000 ≤ 기준가 < Rp 5,000	10		
Rp 5,000 ≤ 기준가	25	20%	

개인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2015년말기준 139개사가 증권 License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계 증권사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NH코린도증권이 있습니다. 총 주식투자 계좌수는 약 43만개며, 실질투자수는 약 34만명으로 총인구의 0.13%에 불과한 수준으로 외국인 증권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국증시와 비교해볼 때 상장 종목수,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대금 등 전반적으로 아직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수출관련 업종이 주도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증시는 내수관련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그룹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증시 VS 한국증시 (한국증시대비 비중)

- 상장종목수(60%) : 537(인니) vs 884(한국)
- 시가총액(40%) : 517조원(인니) vs 1,308조원(한국)
- 일평균 거래대금(15%) : 6,733억원(인니) vs 4조5천억원(한국)

최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2016년말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는 분위기속에 증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와서는 대형주의 저조한 흐름 속에서 호재 있는 소형주 위주로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점차 커지는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유가, 그리고 금리 등 인도네시아 매크로 경제환경은 기업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은 2017년 JCI 목표가인 5,900대를 향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망종목으로는 경기회복과 정부지출 확대와 관련있는 산업을 추천하고 있으며, 특히 인니정부의 리플레이션 정책에 힘입어 담배, 필수소비재, 통신 등과 같은 내수소비업종과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시멘트, 건설업 그리고 금융(은행)업의 주식들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단기보다는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어렵고 특히 본인의 책임으로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주식은 시작이 참 어려운 재산증식의 하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통한 건전한 투자는 결코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증식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도 한번쯤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2017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포브스 전세계 부호 순위, 인니 부호 4명 순위 진입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계 억만 장자 순위에서 상위 500위 안에 인도네시아인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결과 발표는 포브스의 작년 전세계 부호 순위 발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담배 브랜드 자룸의 경영자 부디 하르또노와 인도네시아 민간 최대 은행인 센트럴 아시아 은행(BCA) 마이클 하르또노 형제가 각각 140위와 145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 형제는 인도네시아 부호 1위와 2위를 지키고 있는 슈퍼리치다.

자산은 자룸의 부디가 90억 달러, BCA의 마이클이 지난해보다 2억 달러 증가한 89억 달러였다.

세계 부호 순위는 각각 전년의 142위와 146위에서 상승했다.

석유 화학 기업인 인도라마 그룹의 스리 빠라카시로히아 회장으로 288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부호 3위다. 자산은 전년 대기 12억 달러 증가한 54억 달러로 작년의 361위에서 상승했다.

그 뒤를 카이롤 판중 CT그룹 회장이 359위로 이었다. 자산은 3억 달러 감소한 46억 달러였다.

한편, 포브스가 금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나르마스 그룹의 예카 째따 위자야 회장, 안토니 살림 그룹 회장 그리고 구당 가람을 경영하는 수실로 워노위조요 회장 전세계 순위 500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 아훅 주지사, 중산층 위해 자카르타 인근 주택건설 추진

자카르타 특별주가 중산층 증가로 인해 이들을 위한 아파트 건축에 나서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자카르타 특별주가 자카르타 인근에서 자카르타로 출근하는 이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훅 자카르타 주지사는 최근 늘고 있는 중산층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자카르타 외곽 지역에서 자카르타 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RT 및 MRT 역에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건설될 전망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을 줄이고 통근시간도 단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급된 주택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들어간다.

자카르타 특별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주택은 평균 36 평방미터의 넓이로 월 2백 ~ 3백만 루피아의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자카르타 특별주는 자카르타 외 지역에서 수도로 출근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카르타의 높은 임대료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적게는 월 4백만 루피아에서 3천만 루피아 이상의 자카르타 주택 임대료에 따라 임대료가 저렴한 서부 자바 데벡 또는 보고르 등에서 자카르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수 대책을 위한 주택 철거 등으로 이사를 한 주민들을 위한 공동 주택 건설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는 임대용으로만 건설되었으나 희망자에 의해 구입도 가능하게 정책을 수정하고, 국가에 다시 되 팔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분양가는 36 평방미터의 주택에 3억 루피아의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는 “월 소득 1천만 루피아 전후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러나 월 소득이 국가 최저 임금의 약 2배 정도에만 미치는 가구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훅 주지사는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 건설 지역은 편리한 통근을 위해 버스 정류장 및 LRT, MRT 역에 가까운 곳이 되어 통근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중 교통 이용자의 증가로도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카르타 주 정부는 홍수 대책에 의한 주내 하천 준설 및 확장 작업에 따라 이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 주택 1만 1,105호의 건설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 기업과 협력해 조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위한 건설사 입찰도 실시할 전망이다.

## 조코위 지지도 58%, 주지사 선거가 재임에 영향줄 것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간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재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6.7%였다.

설문조사에서 ‘조코위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6.4%,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2%였다.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현안 문제는 서민경제(16%), 물가(14.6%) 그리고 고용문제(6.3) 등,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는 4일 ~ 14일까지 약 열흘간 자카르타 주의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응답자들은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 선거가 향후 조코위 대통령 재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짜 백신 유통범, 최소 징역 7년 실형 선고

가짜 백신 유통으로 인해 구속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가짜 백신이 대량 유통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 사회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이에 가짜 백신 제조 및 유통에 관여해 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이 지난 17일까지 서부 자바주 브카시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지방 법원은 이 일당에 각각 징역 7 ~ 10년, 벌금 1억 ~ 1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0년 ~ 16년까지 가짜 백신의 제조 및 판매에 가담한 5명에

대한 재판으로, 현직 약사 및 간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형 간염, A형 간염 등 5종류 이상의 백신이 사용된 용기에 가짜 백신과 증류수 등을 섞은 액체를 진짜 백신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다.

가짜 백신은 지난해 6월 이후 연이어 발각됐으며 병원 관계자를 포함해 최소 19명이 기소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브카시와 자카르타 병원 등 적어도 22개 시설에서 가짜 백신이 유통됐고, 최소 1,500명 이상의 어린이에 접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 인니 청년들, '우리도 내집 마련 포기했어요'



자카르타에 거주중인 젊은 세대에게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꿈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구직 시장과 높아지는 부동산 비용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 29세 여성은 “현재의 임금으로는 자카르타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며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먼 거리를 오가고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작년 결혼을 한 그녀는 남편과 자카르타에 집을 알아보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올라 최소 10억 루피아는 필요해 보인다며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현지 언론은 자카르타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자카르타 인근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교통환경으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BPS)의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주택 보유율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한다. 2015년 전국 주택 보유율 평균은 82.63% 이나 자카르타에서는 55.24%에 그쳤다.

반면 한 조사기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젊은세대는 임금을 저축하는데 쓰기보다는 커피를 마시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미래를 위한 절약 보다는 현재를 즐기려하는 젊은세대의 소비세태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카르타 은행에서 근무 중인 한 26세 은행원은 “어짜피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냥 내 월급을 여행하는 데에 투자해 인생을 즐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가 저소득층 및 젊은세대를 위한 자카르타 인근 주택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요하네스 베르메스 제2의 모나리자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발칙한 탄생기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영** 화<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 소녀’의 모델을 상상한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소설을 기초로 한 감독 앨런과 배우 스칼렛 요한슨 영화이다.

‘제2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진주 귀걸이 소녀’는 베르메르의 대표작이자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따뜻한 빛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 ‘진주 귀걸이 소녀’의 모델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해 본다.

영화<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열여섯 살 소녀 그리트는, 아버지가 시력을 잃자 화가 베르메르 집 하녀로 들어간다. 베르메르의 아내 카타리나는 그녀에게 화실 청소를 맡기고, 그리트는 베르메르의 그림에 매료된다. 이어, 베르메르는 청순한 외모와 성숙한 내면을 지닌 그리트에게 빠져들고, 그녀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베르메르의 집 안의 인물들은 서로를 염탐하고 감시하기 시작한다. 집안재정을 관리하는 베르메르의 장모, 지나친 사치를 일삼는 베르메르의 아내 카타리나, 세속적인 베르메르의 후원자,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그리트를 괴롭히는 베르메르의 장녀, 고참 하녀 타네케. 이들의 내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베르메르는 그리트의 초상화 작업에 매진한다. 어느 날 그리트에게 진주 귀걸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베르메르는 그녀의 귀에 아내의 진주 귀걸이를 달기 위한 궁리를 세운다.

회화를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미학과 은유로 가득 차 있다. 일 때문에 항상 두건을 착용한 그리트에게 벗으라고 하는 베르메르, 입술을 벌리고 훑으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직접 그리트의 귀를 뚫어 진주 귀걸이를 달아주는 그의 “은유적인” 요구는 처녀막 상실을 의미한다. 결론코 확대해석이 아니다. 그리트를 그린 그림을 본 그의 아내 가타리나는,그림에 대해 “음란하군요” 라고 말한다. 결국 그리트는 베르메르의 집에서 쫓겨 나지만, 최후의 승자로 볼 수 있다.

그녀는 베르메르의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여인인 동시에 온갖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수십 배 성장했기 때문이다.



실존인물 그리트

Girl with Pearl Earring, 헤이그, 마우리츠하이스 왕립미술관 (캔버스에 유채, 44,5\*39, 1666년경)

베르메르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 소녀’는 세심한 붓놀림, 빛의 이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진주 귀걸이가 반짝 빛나는 이 매혹적인 그림은 미술애호가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아온 걸작이다. 새카만 배경이 얼굴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며 공간의 힘을 보여준다. 거장다운 테크닉을 과시했던건지, 가슴 높이의 인물화는 인물의 두상과 골상을 훈련하기 위해 그때 당시 트로니(Troni) 형식으로 그린 화법이라 한다. 이 소녀는 이국적인 터키식 터번을 쓰고 입을 살짝 벌린 모습이다. 이 그림에서 관심의 초점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란다.



<트로니(Troni)화법의 : 머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린다. 얼굴과 얼굴 표정만 강조해서 그려, 주로 어깨 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스푸마토기법 : 색깔 사이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칠해 형태의 윤곽을 없게 한다.>

어쩌면 이 여인은 미래의 우리를 알고 있는 듯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화가의 통찰력은 시간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짙은 검정색 배경은 앞의 인물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여, 어둠 속에서 순수의 빛은 영롱한 진주와 같다는 것이다.

<참고:씨네21>

글/ 김 은 정 (한인미술협회 회원) kimejart0@gmail.com



# 나의 사랑, 나의 문학



이 은 주 / 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eijikr@hanmail.net

몇 년 전, 싱가포르 한인신문 신춘문예공모전에서 수필부문 수상을 계기로 문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의 문학강연을 통해 한국 문인협회(文人協會)인니지부(서미숙회장)를 알게 된 후 정말 오랜만에 글쓰기와 마주하는 가슴 뛰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동안 직장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멈춰있던 문학에 대한 갈증과 글쓰기에 대한 욕구는 내가 문인협회를 찾게 되었던 이유였다.

이달의 정기모임에서 롬복 김주명시인의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 라는 원 포인트 특강과 함께 15명이 넘는 문협 회원들의 창작시 발표와 각자의 삶의 이야기로 문학의 열기를 뽐어내었다. 진솔한 토론의 시간들은 그동안 굳어버린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데 충분했다. 문협 회원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건조했던 내 가슴에 뜨거운 피를 수혈해주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떨림의 향연! 얼마나 긴 시간동안 이 기쁨을 잊고 있었던 것일까? 열정이 넘치는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의 글쓰기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쁜 예감이 문학을 향한 내 옛사랑의 구애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다가온다.

지난 주말에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 배리젠킨스 감독의 ‘문라이트’ (Moonlight)를 보았다. 많은 퀴어 영화중 단연코 으뜸인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이 영화는 그림자 뒤에 완벽히 숨은 우리들을 끌어내며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인간은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흑인 영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며 또 다른 세계로 데려다 주는 달빛 아래선 누구나 평등하게 만드는 푸른 달빛의 마법을 보여주는 근래에 보기 드문 성장기영화이다. 어쩔 이토록 아름답게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영화를 본 후 잔잔하게 남은 여운은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간간히 가슴 한구석에서 달빛 아래 주인공으로 남아 있다. 나의 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체운을 느끼며 따뜻하게 만져 줄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 뜨겁게 물든 적도의 황금빛 석양 앞에서 행복한 작업인 나의 글쓰기를 생각해본다.

적도에서 처음 만났던 인도네시아의 푸른바다는 마치 지상에 내려와 고인 달빛과 같았다. 나의 팔 길이만큼 아주 낮게 내 머리위에 내려와 있었던 흰 구름은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속삭이듯 나의 몸으로 육화(肉化)하여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움에 폭 빠진 나는 이 모든 것을 문학적인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뻔뻔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새로운 업무는 적응하기에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인도네시아 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매일의 고단한 몸은 글쓰기는커녕 일기 식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글쓰기의 갈증은 옛사랑의 구애처럼 항상 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고, 목마름에 지친 갈증은 사람들 속에서 심한 외톨이로 만들어 버렸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며 더 깊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학이란 넓은 세상의 중심에 서는 법, 거기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리라.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오로지 나만의 자아를 찾는 과정 속에 조금 더 검식(檢食)하듯 작품에 깨지고 나 스스로에게 깨어지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떤 작가는 글쓰기를 통해서 구원 받으며 글쓰기는 즐겁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글쓰기는 고통이다. 즐거운 작업이 결코 아닌 것이다. 떨림이 없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글쓰기로 내 삶의 일부분을 완성하고 싶다. 나의 글쓰기는 칼과 도마와의 관계와도 같다, 오롯이 혼자 설수 없는 도마 위에 언제든지 칼질을 해대는 떼어내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 시퍼런 언어의 칼날로 마구 찍어대는 도마는 넓게 펼쳐진 또 다른 글 세상인 것이다. 글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글을 쓴다. 하지만 읽고 싶은 글을 쓰기는 쉽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납득 할 수 있는 글을 쓰기란 정말 어렵다. 어쩌면 문학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작업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 글을 쓴다. 왜냐하면 나 역시 많은 작가와 그들이 쓴 글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데는 그렇게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서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 힐링(Healing)이며, 카타르시스(Katharsis)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작업은 주위의 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며 망망대해에서 노 젓는 일과 같다. 글은 가벼울수록 좋을 것이다. 때로는 무거운 글이라도 괜찮다. 진실에 가까울수록 더욱 무거워 지는 것이니까. 글쓰기가 필요치 않는 인생이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영화 ‘문 라이트’의 후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내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 글쓰기를 통해 내가 되고 싶었던 나는 더 이상 남이 원하는 내가 될 수는 없다. 지금 나와 나 사이에는 문학의 넓고 깊은 심연(深淵)의 강만 놓여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으나 건널 수 없는 시간들은 조금의 창작의 공간도 없이 이미 나의 심장은 굳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조용히 내게 다시 찾아와준 나의 옛사랑인 문학을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내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태평양 한 가운데 유려(流麗)한 파도위로 적도의 석양이 저무는 아름다움을 글로 쓰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로 이순간이라고... 나의 사랑, 나의 문학은 목젓까지 떨리는 설렘으로 적도의 끝에서 달려와 내 품안에서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내 인생의 숙제로 남아있던 ‘나의 글쓰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표현이 맞나요?

글: 최서혜

#### 14. 알다가도 모르겠는 '~nya'의 쓰임

독자의 요청으로 이번엔 '~nya'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틀린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는 채 무심코 자주 쓰는 '~nya'에 대해 속 시원하게 확인해 볼까요.

① 제3인칭 대명사의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쓰이는 '~nya'  
 '그의, 그녀의, 그것의~' 를 뜻하는 **dia, itu**의 소유격을 줄인 것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toko + nya** 라면 그의 가게 또는 그녀의 가게가 된다.

목적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Saya melihatnya**는 “나는 그녀를, 그를, 그것을 보았다” 가 되는 것이다.

또,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로 표현될 때도 쓰인다. “**Barang diambilnya**”를 살펴보면 **barang**(물건)은 **di + ambil + (oleh) dia**. 그/그녀에 의해 가져가진 것이므로, “그/그녀가 물건을 가져갔다” 라는 뜻이 된다.



## ② 정관사의 역할

정관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말 같지만, 영어에서 'the(그~)'를 의미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처음 언급되는 단수명사는 부정관사(a/an)이 붙고, 이미 언급된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정관사(the)가 붙듯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이 정관사의 역할을 '~nya'가 담당한다.

**Gedungnya tinggi.** (그 건물은 높다.)

**Tokonya lagi sale.** (그 가게는 지금 세일한다.)

## ③ 형용사 뒷부분에 결합해 명사화

어려운 말로는 '형용사에 접미한다'고 표현하지만 간단하게 예문으로 이해하면 빠르다.

**Gunung Agung di Bali itu tingginya 3,142 meter.**

(발리의 아궁산의 높이는 3,142미터이다.)

여기에서 ~nya는 형용사인 tinggi(높은)에 접미해 '높이'라는 명사가 됐다.

##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 # 각종 표시와 기호

표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단연 'tanda'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후 가장 많이 묻는 "Pakai pin atau tanda tangan?(비밀번호를 쓰시겠어요? 서명을 하시겠어요?"에서 tanda tangan은 서명이다. Tanda terima는 받은 것을 표시하는 '영수증'을 의미한다. Tanda baca는 구두점, tanda bagi는 [:] 일명 팽팽이다. Titik koma는 [:] 세미콜론이다. titik이 점(.), koma가 쉼표(.)다.

Tanda tanya는 [?] 물음표, tanda tambah는 [+] 더하기 표시, tanda kurang은 [-] 마이너스 표시, kurang lebih는 [±] 플러스 마이너스, 즉 kira-kira, sekitar(약, 대체로, 아마도)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tanda kali는 [X] 곱하기 표시, tanda kurung은 괄호 [ ] 표시다. Kurung은 새장, 우리, 감옥이라는 뜻도 있다. Tanda seru는 [!] 느낌표이며, seru는 '흥미롭다'는 의미로 평소에도 자주 쓰인다. Tanda bukti는 '증거'라는 뜻이 된다.

### # "우선 가세요~"

"먼저, 우선~ OO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Dulu'를 알아보자. 양보의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업무에서 지시할 때도 자주 쓰인다.

**Makan dulu.** (먼저 드세요.)

**Silakan istirahat dulu.** (우선 좀 휴식을 취하세요.)

**Silakan naik dulu.** (먼저 타시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탑승한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때 **Silakan duluan**하고 권한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는, 내가 먼저 내리거나 먼저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때도 **Permisi saya duluan pak**,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를 쓴다. 줄을 서 있다가 누가 내 앞으로 새치기를 하려고 할 때도 **Misi, Saya duluan** 또는 **Maaf, Saya duluan**(실례하지만, 제가 먼저 왔습니다.)을 쓸 수 있다.

**Bikin laporan dulu, kirim e-mailnya nanti saja.** (우선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이메일 송부는 이따가 하세요.)  
**Pikir dulu, sebelum bicara(berkata).**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먼저 하세요.)  
**Pikir dulu, sebelum bertindak.**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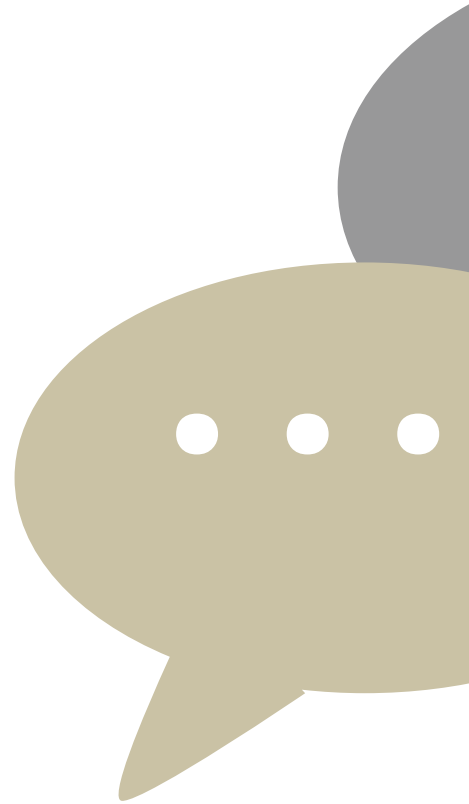
**Permisi**는 영어의 **Excuse me**라는 뜻이다. 관련 예문으로, “나는 조퇴하려고 이미 보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Saya sudah permisi dengan bos bahwa saya boleh pulang cepat(=lebih awal).”**이라고 말하면 된다. 더 쉽게 표현하려면 **“Saya sudah dapat izin pulang lebih awal dari bos”**라고 해도 된다. 동료 등 더 편한 사이라면 **“Aku duluan ya!”**(나 먼저 갈게!)도 무방하다.

## # ~뒤따르다(menyusul)

“내가 먼저 갈 테니, 나중에 따라와라” 또는 “조금만 있다가 곧 따라갈게”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동사원형 ‘susul’에 meny-가 붙은 형태인 ‘menyusul’을 자주 사용하는데 회화에서는 nyusul로 줄여 쓴다. Ikut에 me+i 접사가 붙어 동사가 된 mengikuti도 사용할 수 있다. **Kamu duluan saja, Aku nanti nyusul.** (너 먼저 가, 내가 나중에 따라갈게.)

뒤떨어지거나 부족한 점을 보충한다는 말을 할 때도 **menyusul**이 쓰인다. **Dia pakai cuti 3 hari, jadi dia harus menyusul ulang(kembali) kerjaan pada saat dia cuti.**

그는 이미 3일 휴가를 썼기 때문에, 휴가 기간 못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훈내다(tegur), 훈이 났다(ditegurin, dimarahi)

**Tegur**는 ‘훈을 내다’ 이고 **ditegur**는 ‘훈이 나다’ 이다.

**Marah**는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훈이 났다는 표현은 **marah**에 수동태 **di**가 접두사로 오고, 접미에 **~i**(~에게, 즉 **kepada**를 의미)가 붙은 형태의 동사 **dimarahi**도 자주 쓰인다.

**Aku ditegur keras sama bos(oleh bos) di rapat tadi pagi.**

(나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스에게 훈이 났다.)

**Anak itu sering dimarahi guru, karena tidak mengerjakan PR.**

(그 아이는 숙제를 하지 않아 선생님께서 자주 훈이 난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타인 앞에서 어느 누구를 훈내는 것을 금기시한다.

술라이만이라는 이맘(회교 지도자)이 한 이런 말이 있다.

**“Barangsiapa menegur saudaranya di saat mereka hanya berdua maka itulah nasihat, dan barangsiapa yang menegur saudaranya di depan banyak orang maka ia telah menjelek-jelekan saudaranya”** 즉, “누구라도 어떤 이를 훈낼 때 둘 만 있는 자리에서 한다면, 이는 충고이다. 누구라도 어떤 이를 훈낼 때 많은 사람 앞에서 훈을 낸다면 이는 비방하는 것(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자가 위대하다

화담 서경덕, 가능성을 넓히는 생각의 힘



강희안[고사관수도]

나는 집이 가난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책도 구하기가 어려워 먼저 사색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구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나물을 캐오라 했지만 나는 한 줌도 뜯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게을렀기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의 명을 거역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생각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 “새가 땅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온종일 그 이유만을 생각하다가 그만 푸성귀 뜯는 일을 잊어버렸다.”

[화담집] 서문

나의 스승은 자연과 책이었고, 더 큰 스승은 사색이었다. 그렇게 점차 생각의 힘을 기르자 진짜 공부하는 사물을 궁구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삶은 깊고 넓어졌다.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 토정 이지함과 같은 걸출한 제자도 배출할 수 있었다.

18세가 된 어느 날, 한 번은 「대학」을 읽고 경악한 적이 있었다. ‘스스로 사물을 궁리하고 사색하여 지(知)에 이른다’는 문장을 보고 전율했다. 그것은 생각의 힘에 대해 더 크게 깨달은 계기가 됐다. 이후 생각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내 탄식이 터져 나왔다.

### “공부를 하면서 사물을 궁리하고 사색하지 않는다면 독서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화담선생문집] 중

사색하지 않는다면 독서조차도 무용(無用)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지식을 흡수하고 습득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 승진을 목표로 한 수단으로서의 지식만이 남아 있다. 혹은 앎을 뽐내기 위한 허세의 일환으로 쓰기도 한다. 많이 외웠는지의 차원에서는 사람 간의 순위를 가리지만, 깊게 생각했느냐의 기준에서는 독보적인 자기 색깔을 가졌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창조적이란 것은 ‘다름’을 의미한다. 나만의 차별성을 발견하면, 대체불변의 인재가 될 수 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 년을 산들 그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과 연습은 스스로 생각을 하려는 훈련을 갖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피동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듯하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면, 환경과 삶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생각의 폭이 좁고 편협하면 그 생각을 하는 주인의 삶 또한 그렇다. 결국, 생각의 한계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세계의 크기가 되고 가능성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생각을 통해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궁리하는 사람은 창조적이며, 주체적이고, 역동적일 확률이 높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은 곧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것이 최고의 공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의 크기가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크기임을 명심하라.

[월간 문화재사랑] 글: 김병완 작가

## 인도네시아 민법(15)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3.2.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사항 범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 13.2.1. 계약대로 이행 청구
- 13.2.2. 손해배상 및 계약대로 이행 청구
- 13.2.3. 손해배상 만 청구
- 13.2.4. 계약 해지 청구
- 13.2.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13.3. Wanprestasi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다르게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민법 제1365조). 계약서에 손해 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어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계약위반을 시인하고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면 문제가 조용하게 종결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인 경우에도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부담을 줄여 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나 아예 손해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도를 통하여 강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계약 위반에 대하여 민법 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비 배상, 손실 배상 및 이자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3.3.1. 경비 배상 : 계약 때문에 이미 발생한 제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예” 를 들면 오더를 가진 무역회사와 생산시설을 가진 봉제공장 간에 신사복 1,000벌을 2016. 10. 31.에 Delivery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봉제공장은 약정한 대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신사복

1,000벌을 생산 완료하고 무역회사에게 Delivery하려고 하였으나 무역회사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Wanprestasi에 해당되며,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부자재비, 포장비, 인건비, 공장 가동 경비, 금융경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3.3.2. 손실 배상 :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접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 를 들면 유명한 가수가 Show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 출연하지 않은 가수는 Show업체가 이미 지급한 공연장 임차료, 광고 비, 장비/설비 임차료 등을 Show 업체에게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약속한 가수가 출연을 하지 않아서 흥분한 청중이 공연장의 장비, 설비 및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가수는 청중이 파손한 공연장의 장비, 설비 및 기물까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13.3.3. 기대이익 배상 : 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으면 발생했을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 를 들면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계약대로 무역회사에게 납품했으면 Rp.10억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무역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봉제공장이 기대이익 Rp.10억을 놓쳤으므로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놓쳐 버린 기대이익 Rp.10억을 봉제공장에게 배상해야 한다.

13.3.4. 이자 배상 : Wanprestasi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자 기산시기를 손해 발생 시기부터 요구하느냐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일자부터 요구하느냐는 청구자의 자유이며, 민법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년 6%이나 소송청구 시에는 통상 세법에 기준하여 월 2%를 청구하고 있다.

## 14. 계약 해지

14.1. 모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를 합의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판결을 받아내야 계약이 해지된다. 많은 일반인들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의 규정은 상식과 다르게 되어 있다. “예” 를 들면, 제조업체인 A사와 건설업체인 B사 간에 A사의 공장 건물 건축을 계약하고 B사가 시공하는 도중에 시공 중인 건물의 Quality가 계약과 다른 것이 발견되어 A사가 계약 위반 이유를 들어 B사의 시공을 중단시키고 C사에게 시공을 시켜 건물을 완공시킨 경우에 B사가 A사를 상대로 계약 일방 해지 사유를 들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경우 A사가 불리하다. 계약서 내용 중에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을 위반한 B사는 A사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없고, 건물 Quality가 계약과 상이한 것이 발견된 후에 A사와 B사 간에 계약해지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에서는 오히려 A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일방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B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A사에게 명할 가능성이 높다.

14.2. 민법 제1266조는 모든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계약 해지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위반 내용이 전체 계약 내용에 비해 미미한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자가 너

무 큰 손실을 당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신사복 1,000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신사복 1,000벌을 납품했는데 단추 한 개가 잘못 달렸다는 이유로 납품을 받는 업체가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며 납품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납품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 내용의 정도에 비해 납품업체의 손실이 너무 크므로 법은 계약 위반자의 위반 내용에 상응한 책임만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어느 쪽의 손실이 더 큰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이 해지되면 발생할 손해를 주장하여 손해 배상을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판사가 판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소송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은 판사가 반드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손실은 모두 청구하여 배상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 15. 책임전가

민법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 전가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전가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 전가이다. 파업, 강도, 도난, 소요사태, 화재, 법규 변경으로 인한 계약위반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분명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를 들면 1997년 7월 하순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천재지변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이다.

(다음 호에 계속)



여기~ 맛있어요!

# Uncle Pin's Seafood

글: 이승진 (한인회간사)



이번 호 소개할 곳은 북자카르타에 위치한 Muara Karang 지역에 있는 시푸드 레스토랑이다.

보통 한인 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푸드레스토랑의 조상격인 Bandar Djakarta는 안졸 본점에서 알람수트라, 버카시 지역에 이어 수라바야까지 체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유명 시푸드 음식점이다.

테이블에 앉기 전 직접 해산물을 고른 후 입맛에 맞는 요리법대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단순히 식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active' 한 외식의 기분이 난다고 나 할까? 시푸드를 먹고 싶다.. 시푸드를 먹으러 가볼까? 하면 으레 'Bandar Djakarta' 만 생각했던 글쓴이는 거주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북자카르타 'Muara Karang' 지역에 위치한 Uncle Pin's 시푸드 집을 가보고,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Uncle Pin's 라는 식당 이름이 특이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앵클' Pin이 운영하는 이 시푸드 집은, 근처 Pasar Ikan Muara Karang 이라는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공수해오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위치상의 이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해산물 공급이 가능하다.

주중을 포함하여 주말에는 저녁시간대가 되면 대기를 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곳의 Signature Food 즉, 대표 메뉴 중 한가지는 'Ikan Krapu Tim Nyonya' 라고 하는데 (Krapu는 사전에 농어라고 표기되어 있다) 농어를 통째로 노란색을 띠는 Kunyit을 기본으로 각종 향신료를 넣어서 찌낸 음식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선을 즐겨먹지 않는 글쓴이인데 친구들의 권유로 먹어보았다. 향신료와 조리법으로 생선의 비린내를 잘 잡았고, 생선살은 부들거리며 곁에 국물과 떠먹기 좋다. 국물은 시큼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있어 한번 먹으면 계속 손이 가는 맛이다.

위의 언급한 대표 메뉴 이외 Kepiting Asap, Kepiting Saos Padang 같은 게요리, 새우 요리 등 전체적으로 맛이 괜찮다. 개인적으로 Cumi goreng이 다른 시푸드집들에 비해 식감이 좋았다.

Muara Karang 지역은 현재 또 다른 맛집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와롱 또는 길거리 음식점부터 현재 트렌드인 디저트 카페까지 다양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주말에 가보는 것을 권유한다.

Jl. Pluit Karang Timur Blok B-8  
No. 78-80 Muara Karang  
Jakarta  
Telp. 021 22667451





제4회  
한인 문예총  
종합예술제

2017년 5월 9일(화) ~ 14일 (일)

롯데쇼핑 에비뉴 LOTTE SHOPPING AVENUE, MAIN ATRIUM



개막식/공연 Opening Ceremony & Performance  
5월 11일(목) 16:30 (Main Atrium)

전시 Exhibition  
2017년 5월 9일~14일

# 스마트해진 행정 서비스

가끔 필요한 서류를 짧은시간에 해결해야 할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보험은 일괄 처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한 번 신고만 하면 연계되어 처리된다고 한다. 대 총 마무리 지어졌나 싶었더니 또 카드사 문제가 남아있다.

전화를 걸어 여차여차했음에도 뭔가 미흡하고 번거로운 건 어쩔 수가 없다.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전입 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편해진다고 한다.

먼저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스마트 앱 등으로 신청한 후 원하는 곳, 예를 들면 기차역,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로까지 수령지를 확대해 받아볼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한다. 물론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받는 방법은 이미 서비스되고 있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을 경우 불가능했다. 휴대전화로 신청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니 분명 스마트해진 것은 맞다.

또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혼인 착착 서비스’가 도입되며 행복출산, 안심 상속 서비스도 확대된다. ‘혼인 착착 서비스’가 실시되면 혼인신고할 때, 동 주민센터 등에 하는 전입신고와 해당 공공기관 및 금융 회사 등에 별도로 해야 하는 주소지 변경들을 일괄 신청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 ‘행복 출산 서비스’를 이용

하면 병원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전송해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 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을 받을 수 있다.

‘안심 상속 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각종 상속 재산을 온라인으로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에서 국제면허운명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발급 센터도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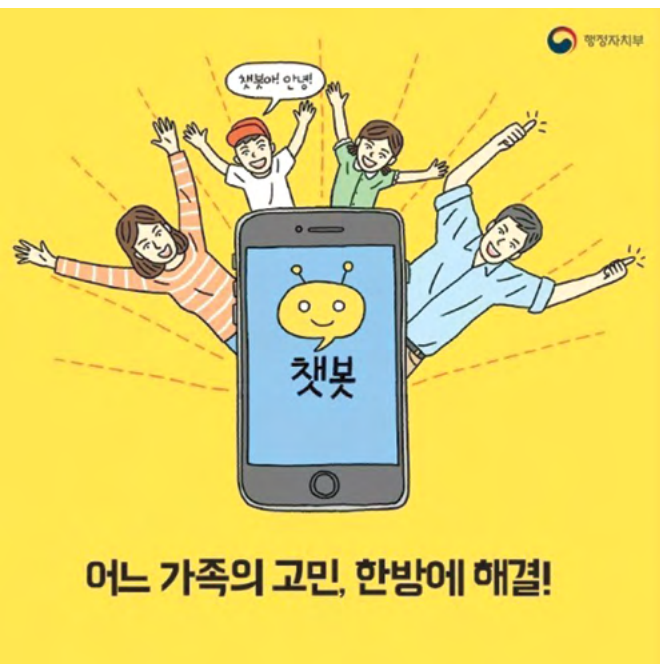
점점 편리한 세상이 되어간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편리해지길 바란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고 신고하는 것이 귀찮았는데 어느덧 휴대전화로 해결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다. 예전에 졸업증명서를 학교 본관 건물에서 발급받았는데 언젠가부터 동사무소에서 대행해주었고, 이제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공항에서 지문 등록을 한 경우 빠르게 출입국 수속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등록해서 점차 속도가 나지 않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처음엔 정말 하이패스더니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슬로패스라고 부른다.

물론 편리를 추구하는 전산화 작업이 가끔은 당황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 출생신고에서 성별이 바뀌기도 하고 때론 혼인신고가 잘못되기도 한다. 어느 날 서류상으로 아들이 입양돼 있었다는 억울한 사연도 가끔 듣는다.

스마트한 세상일수록 직접 체크해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생활 민원 서비스? 24시간 민원 도우미 ‘챗봇’ 으로 해결한다!



주차공간 어디지? 만료된 여권 갱신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 지역 행정서비스 민원 문제는 어디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일상생활 속 고민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색도 필요없는, 간단한 채팅만으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챗봇’ 이 2017년 서비스 구축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을 합친 말로, 인공지능 기반 채팅형 검색 솔루션을 통합하는 단어입니다.

간단한 생활민원을 채팅으로 통해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특히 챗봇은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죠.

[출처] (행정자치부 업무계획)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소개

저는 지난 주말에 Jakarta 남부에 있는 Mall에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갔으며 Mall 지하 주차장 도착하여 제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사 및 쇼핑을 하였습니다. 쇼핑 후 집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갔으나 자동차가 없어져서 주차 관리 사무소에 주차권을 제시하며 차량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결국 도난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Mall 주차 관리 회사는 주차권에 “만약 차량 도난 및 분실 시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차량 소유자 본인의 책임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 주차 관리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러면 저 같이 백화점에 방문하여 차량 분실 시 누구에게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문의하신 귀하께서는 차량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주차 관리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법 제 2조 1항 [Pasal 2 ayat(1) UU No.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에 의하여 귀하께서는 주차 대행사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Konsumen)에 해당하며 동법 제 18조 1항 [Pasal 18 ayat(1) UU No.8 Th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규격조항(Klausul Baku)은 금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주차관리 사업자는 차량 분실에 따른 손해를 귀하께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Putusan MA No.124 PK/PDT/2007 tertanggal 21 April 2010)에 서도 상기와 같은 경우 주차 관리사인 PT.Secure Parking Indonesia (PT.SPI)에게 차량 분실에 따른 Rp60 Juta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석탄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PT.Sewa Oto Abadi라는 회사에서 1년된 양호한 트럭 20대를 2년 임대 계약하여 사용중 대부분의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현재 50%도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손해를 트럭 제작사를 상대로 수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트럭 임대 회사에게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 Q

귀사는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사는 트럭을 임대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최종 소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의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민법 제 1243조 (Pasal 1234 KUHPerdata)에 의거 “1년 밖에 안된 양호한 트럭을 임대한다는 계약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에 대한 최고장을 PT.Sewa Oto Abadi에 송달 후 그래도 성실한 답변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일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A

**Tips 1.**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위반한 사항의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 기관인 소비자 분쟁 조정청 (Badan Penyelesaian Sengketa Konsumen-BPSK)에 제소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직역으로는 다소 맞지가 않아서 의역한 명칭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 수도에 BPSK가 있으며, 참고로 Jakarta에는 BPSK, Provinsi DKI Jakarta가 Jl. KPBD No. 42 Sukabumi Selatan, Jak-Bar 11560에 위치하며 Telp. (021) 5369069, Fax. 5369069입니다.

신청 방법은, 소비자 분쟁 조정청장 앞으로 하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 (Permohonan)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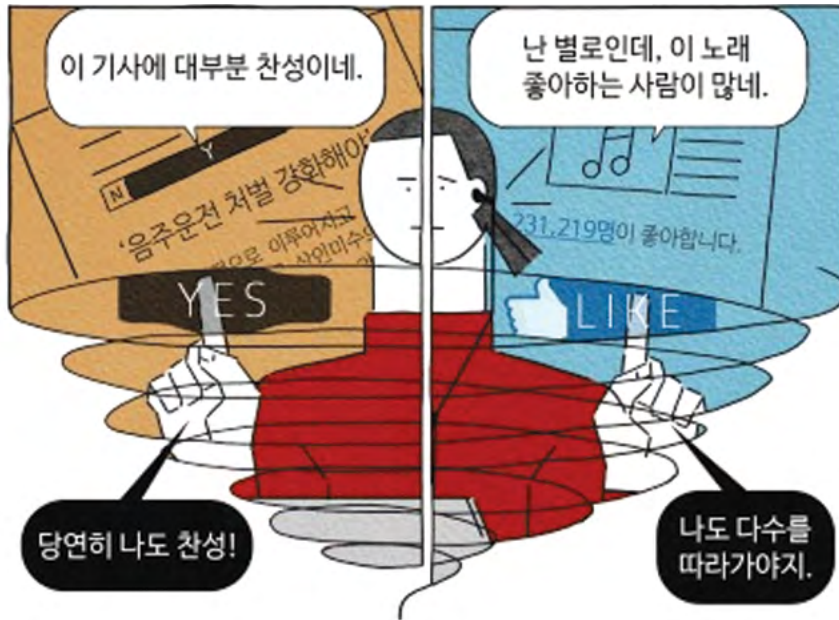
- Nama, Alamat Pengadu dan Alamat yang diadukan
- Keterangan waktu dan/atau tempat terjadinya transaksi
- Kronologis kejadian (분쟁 발생 개요)
- Bukti-bukti yang lengkap seperti: Faktur, Kwitansi, Bon dll
- Foto copy KTP/KITAP/KITAS pengadu.

**Tips 2.** 대한민국에도 1996년에 법률 제 5030호로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2007년도까지 6차에 걸쳐서 개정 시행되어 오다가 2008년도 3월 21일 법률 제 8983호로 소비자 기본법 (Framework Act on Consumer)이 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법의 명칭과 내용이 흡수 시행돼 오면서 현재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 침묵의 나선 이론

[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다수의 의견과 동일하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소수의 의견일 경우에는 남에게 나쁜 평가를 받거나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론의 형성 과정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모습이 마치 나선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주류에 속하고 싶은 인간의 강한 욕망이 침묵의 나선을 만든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윤리적인 문제나 공공의 문제에 관한 의견 등 주관적인 생각에만 적용된다. 명백하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사실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 지배적인 의견을 주로 반영하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 노엘레-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왼쪽 화살표는 매스미디어가 지배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의견을 뜻하고, 오른쪽 화살표는 다른 의견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정도를 의미한다. 가운데의 나선은 공식적으로 다른 의견을 표하지 않고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신의 뜻을 바꾼 사람들을 의미한다.



##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인 알렌스바흐 연구소 설립자이자 소장인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 (Elisabeth Noelle-Neumann)이 제시

독일의 커뮤니케이션학자이자 정치학자 노엘레-노이만은 1974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화난 얼굴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여 주었다.

노엘레-노이만은 피험자들에게 이 영상을 본 의견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이때 피험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피험자 중 흡연자들은 주변에 비흡연자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흡연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어떤 의견이 우세한지를 판단하여 동조하고 똑같이 행동하려는 ‘획일화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노엘레-노이만은 인간에게는 ‘고립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에 속한다고 느낄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감추어야 한다고 압박을 느껴 침묵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 침묵의 나선 이론 사례에는...



### 1. 정치의 경우

선거가 끝난 후 실제 투표결과보다 당선자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게 나타날 때가 있다. 사람은 소외되지 않고 승자에 속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에 압박해서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에 의해 여론이 우세한 후보 쪽으로 쏠리는 효과 및 여론조작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어떤 분명한 의견이 존재할 때에는 사람들이 여론을 관찰하고 본인의 의견을 결정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즉, 선거를 앞두고 ‘대세론’이 생기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기가 꺼려지고 의견을 개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 2. SNS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SNS 타임라인을 본인이 보고 싶은 콘텐츠로 구성한다. 그래서 본인이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보고 그렇게 파악된 여론이 다수 의견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진다.

SNS는 소수의 파워유저들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당하기 쉽다. 때문에 어떤 의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동안 이미 다수의 의견이 형성되는데,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신상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SNS 상에서는 1%의 콘텐츠 생산자가 있고, 9%가 그 내용을 전달하고, 나머지 90%가 관망한다는 주장처럼 자신의 소수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 제 42차 헤리티지 따만미니 전통가옥관 탐방

- o 일시: 2017년 4월 26일 (수) 9시 30분
- o 장소: TMII 왼쪽 주차장 공터

\*모든 일정 변경 가능

재미난 박물관과 전통 가옥을 방문하여 인도네시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박물관
- 루마 가당 ( 서부 수마트라 전통 가옥관)
- 룽하우스 ( 칼리만탄 전통 가옥)
- 파푸아 전통 가옥관 등 방문

o 소요시간: 9시~11시 반

o 신청접수: 헤리티지 밴드(덧글로 성함과 전화번호 써주세요)  
irenesujin@gmail.com ( 메일로 문의 가능)

o 회비 : 회원 10만 루피아 / 비회원 15만 루피아( 비회원은 헤리티지 탐방에 단 1회 참석 가능합니다) ( 가이드 비용 포함 / 점심 불포함)

o 준비물: 모기퇴치제 물 부채

o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회장 이수진)



### 45회 열린강좌

## 인도네시아의 꽃과 나무는 말한다(제 4강)

- \*일시: 2017년 5월 6일(토) 10:00-12:00
- \*강사: 노경래(전포스코 인도네시아자원개발법인장)
- \*회비: 10만Rp (책자, 간식) (비회원 15만Rp)
- \*장소: 한\*이니문화연구원(한인문화회관 1층)

신청: 밴드 덧글 <http://band.us/n/abaeTelbO7U3C> /(SMS/KT) 조은숙수석  
팀장 0818756217 / 아스리다 0838-78347811





# The 7<sup>th</sup> International Drawing Contest



**Saturday, 29 April 2017, 10 ~ 12 am**

**Singapore Intercultural School Bona Vista (SIS BV)**

Jl. Bona Vista Raya, Lebak Bulus, Jakarta Selatan

## Participants

Year of Birth 2002 ~ 2013  
( Children around the worl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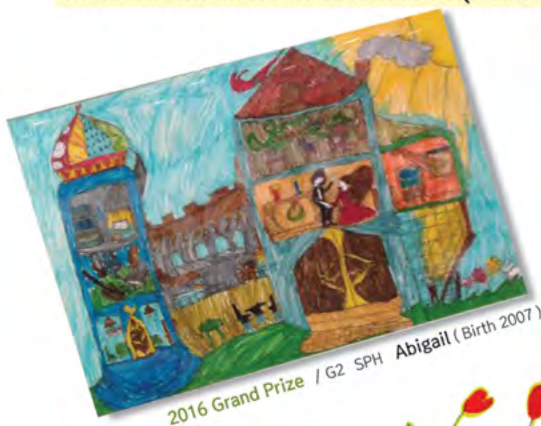
## Registration

13 March ~ 14 April 2017, 17:00  
(250 in order of application)

Application form download at Korean Cultural Center  
([id.korean-culture.org](http://id.korean-culture.org))

Mail completed form to [idx@kccindonesia.org](mailto:idx@kccindonesia.org)

More Information : Mr.Back Hun (0812 8830 9202)



kccindonesia



@kcc\_indonesia



<http://id.korean-culture.org>

Equity Tower 17fl, SCBD JL.Jend Sudirman Kav.52-53,jakarta12190

# 2017년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기준: 납부일 순)

번호	성명	금액(IDR)	비고
1	정무웅	300,000	2017
2	이옥찬	300,000	2017
3	서영률	300,000	2017
4	최태진	300,000	2017
5	하연수	300,000	2017
6	구종율	300,000	2017
7	김희년	300,000	2017
8	석웅치	300,000	2017
9	김우재	300,000	2017
10	김종현	300,000	2017
11	김영율	300,000	2017
12	김대근	300,000	2017
13	김창근	300,000	2017
14	조용재	300,000	2017
15	이철훈	300,000	2017
16	오세윤	300,000	2017
17	신규태	300,000	2017
18	오세명	300,000	2017
19	김지연	600,000	2017/2018
총 금액		Rp6,000,000	

**KANA 가나 RESTOLOUNGE**

**케터링 (Catering Service)  
퀵 도시락 (T/A)**



가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케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인이상 맞춤형 이벤트 환영**  
돌잔치, 집들이, 골프모임, 피로연, 동문회 등

메뉴 : 불고기, 잡채, 모듬전, 샐러드류 한방 갈비찜,  
김밥, 초밥, 수육, 떡볶기, 새우요리 및 씨푸드 등의 전통 한정식  
디저트 : 식혜, 수정과, 콕틸(화채), 모듬떡, 시즌과일 등등.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 재인도네시아안인회 2017년도 임원찬조금 납부 명단

※ 기준: 2017년 3월 29일까지

번호	구분	성명	회사명	금액	
					IDR
1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67,500,000
2	고문	배정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67,000,000
3	고문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66,315,000
4	부회장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67,000,000
5	부회장	김희년	PT. AITI INVESTMENT		67,500,000
6	부회장	박태용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67,500,000
7	부회장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8	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67,500,000
9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3,500,000
10	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1,000	
11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1,000	
12	이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3,500,000
13	이사	김원관	PT. GF INDONESIA		13,200,000
14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3,500,000
15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3,500,000
16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13,500,000
17	이사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3,500,000
18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3,500,000
19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3,500,000
20	이사	최태진	PT. KOLON INA	1,000	
21	이사	황윤홍	PT. JAC RECRUITMENT INDONESIA		13,500,000
22	무기명				13,500,000
총 금액				\$8,000	Rp618,515,000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꼴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중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한인뉴스는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인사동정 및 새로 연 사업체를 무료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Telp. 021-521-2515/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b>• 대학교</b>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준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데미랑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중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매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꿀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꿀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군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Open House: 25 Feb | 28 Apr 2017**  
9am to 12pm

**Contact:**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	--



**www.ichthusschoo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궁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썬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 창립 24주년 행사

아시아진주가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상의 품질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감사 특별 할인행사 :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2월 28일**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감사 특별 할인 및 한정 판매

남양진주(10-17mm) 50점  
다이아(3부-1캐럿) 10점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수출·무역**

HP. 0816-873-176,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256-6862, +82-10-9824-885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병우	0811-956-227	회장
강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승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리 (지역번호 0361)**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 한국대사관.....021)2967 2555
- 영사과.....021)2967 2580
-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 아시아나항공(시내).....021)5721381~3  
(공항).....021)5591 3229

## ■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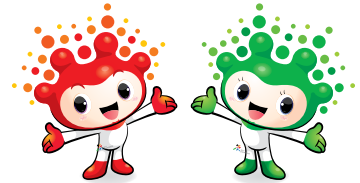
-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 전기고장 문의.....123
- 전화고장 문의.....147
-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 공 고



## 2017년 제98회 대한민국 전국체육대회 볼링선수 선발대회

### · 참가자격

인도네시아 3년이상 거주 대한민국,  
국적 만 18세 이상 KITA & KIM'S 소유자 10월20일~10월26일까지(7일간)  
충북 충주시 전국체전에 참가 가능자.  
참가 신청 마감전 볼링협회 가입자 (비회원 참가 가능하나 선발 및 시상 제외)

### · 참가신청

2017년 03월 15일 ~ 2017년 4월15일 16시 30분까지 마감  
\* 협회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함 (협회비 : 월 10만 루피아, 일시불 년 100만 루피아)

### · 신청 접수처(참가신청 가능한 E-mail 요망)

사무국 Mobile 0858-1126-2163 & 사무국장 Mobile 081-1163-5876  
재-인도네시아 볼링협회 E-mail : kbaindonesiaclub@gmail.com

### · 선발 경기대회

일시 : 2017년 4월15일(1차), 5월20일(2차) 17시 부터  
게임 : 1,2차 각 8게임 16게임 토탈점수

### · 경기대회 장소

BOWLING CLUB MALL ARTHA GADING Lantai 6 KELAPA GADING  
Tel: 021 4586 3730

### · 참가비용

회 원 : 대회관련 비용 및 식사 를 재-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에서 제공 합니다.

비회원 : 1차 ,2차 각 30만 루피아  
45,000RP \* 16게임 = 720,000RP (120,000RP 볼링협회에서 지원)

\*참가자 전원 티셔츠 및 2차전후 만찬 제공

### · 기타사항

남자선수 6명 & 여자선수 6명 선수 전체12명 선발이며 본 경기대회 시상 및 선발선수는  
男,女 각각 1위 2위 3위 까지 시상 및 확정 선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미확정 선수  
男,女 각각 3명씩을 재 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회장 및 임원이 추천한 자를 중심으로  
임원회의를 거쳐 2017년 5월30일 전후로 인터넷을 통하여 최종 확정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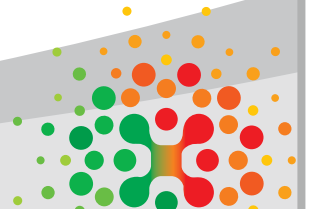
### · 문의사항

재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사무국 Mobile: 081-1163-5876으로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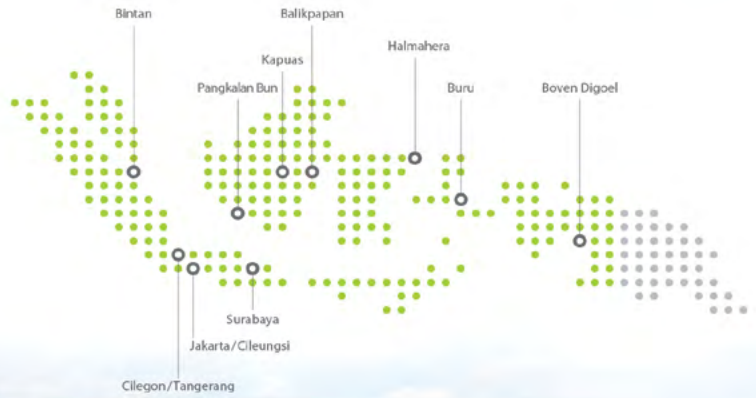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  
CHUNGBUK



# KORINDO Plants the Green



##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 KIDECO

##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www.kideco.com](http://www.kideco.com)

[marketing@kideco.co.id](mailto:marketing@kideco.co.id)

